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3999.13	코스닥	916.11
	(-91.46)		(-22.72)
금리	2.999	환율	1475.40
	(-0.001)		(+4.40)

머스크·리사 수 만나고 온 이재용 글로벌 AI대전환 사업구상 구체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美서 북귀 테슬라 머스크와 테일러공장 방문 리사 수 만남서 ‘HBM공급’ 핵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일주 일간의 미국 출장에서 북귀한 가운데 삼성이 내년도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글로벌 전략회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이 회장이 미국서 테슬라와 AMD, 인텔, 퀄컴, 버라이즌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만남을 갖고 돌아온 만큼 이번 전략회의는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반도체, 전자 등 그룹의 핵심 사업의 경쟁력 확대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번 미국 출장 기간 중 오스틴에서 일론 머스크 CEO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은 테슬라 본사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위치한 곳이다. 두 사람은 인근 테일러 파운드리 신규 공장을 둘러보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테슬라로부터 23조원(165억달러) 규모의 차세대 AI 칩 ‘AI6’ 생산 계약을 따냈다. 이는 파운드리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리사 수 AMD CEO와의 만남에서는 HBM(고대역폭메모리) 공급과 2나노 파운드리 수주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삼성전자는 AMD의 AI 가속기 ‘MI350’에 HBM3E 12단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새너제이 소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주총괄(DSA) 사옥을 방문해 현장 경영도 챙겼다. 그는 이번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AI 대전환이 본격화할 내년도 사업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회장은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글로벌 전략회의는 참석하지 않



고 출장 성과를 정리한 뒤 내년 사업 방향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글로벌 전략회의의 최대 화두는 AI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각 사업부의 현안 및 내년도 사업 목표, 영업 전략 등이 논의되는 자리로 향후 경영 방향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16~17일은 모바일·가전·TV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이, 18일에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장은 내년 초 서울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신년 사장단 만찬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신년 사업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이 AI 시대를 맞아 기술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응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은 내년 초 서울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신년 사장단 만찬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신년 사업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이 AI 시대를 맞아 기술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응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재용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5년 기부·나눔 단채 초청행사에서 바보의 나눔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보의 나눔 홍보대사 바다, 이 대통령, 김 여사, 구요비 옹 주교(이사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올해 의료관광 외국인 140만명 뷰티·유통·관광 등 성장축 부상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

‘K의료’가 뷰티, 유통 서비스, 관광 등 연관 산업을 견인하며 고부가가치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K의료가 활성화되면서 방한 외국인 환자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방한 외국인 환자수는 전년 61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약 2배 늘었다. 방한 외국인 환자 실적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연간 100만 명대에 진입한 가운데, 올해는 1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용카드 소비 외국인 환자 92만명 소비금액 3.7조 중 1.4조는 의료소비 1인당 의료비 포함 총 소비 399만원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단일 진료에서 다양한 의료 관광으로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의료 소비를 한 외국인 환자수는 약 92만 명이다. 이들의 카드 소비 전체 금액은 3조6647억원이며 이중 의료 소비는 1조4053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8%에 해당한다. 진료과별 소비 구조는 피부과가 5855억원의 소비가 발생해 1위에 올랐고 성형외과 3594억원이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만 총 9449억원의 소비가 나타난 것으로 이는 의료 소비의 67%를 차지한다.

이러한 피부과, 성형외과 등 주요 진료과 이용과 함께 백화점·면세점·특급 호텔·일반음식점 등 의료 외 4대 업종 소비 규모는 7995억원이다. 카드 1개를 외국인 환자 1명으로 단순 환산한 경우에도, 1인당 의료비 153만원을 포함해 전체 소비 399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 107만원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소비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장속에 미용·쇼핑 집중형, 치료의료 집중형, 관광 복합형 등으로 소비 유형도 복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다만, 일본, 중국, 태국 환자들은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K뷰티 연계형’ 환자로 분류됐다. 카자흐스탄, 몽골 환자들은 한국을 치료 목적지로 인식해 건강검진, 종합병원, 내과 등에 방문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싱가포르 환자들은 의료와 관광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국제의료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를 단순 ‘환자 수’가 아닌 의료 중심을 한 ‘연관산업에서의 외국인환자 소비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첫 사례”라며 “나아가 지역 특화 의료관광 모델 개발, 지자체 정책, 관련 산업계 사업 기획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한국 방문이 어려운 해외 환자를 위한 사전·사후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 첨단산업 육성”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구윤철 부총리
“AI 대전환에 6조, 지역에 12조
국민참여형 6000억 규모 조성”

내년 한 해 30조 원대의 ‘국민성장펀드’가 가동돼,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쓰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전담반) 회의에서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는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AI 대전환에 6조 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겠다. 12조 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균형성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내년 투자 분야 및 규모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2000억 원 ▲이차전지 1조6000억 원 ▲디스플레이 50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 원 ▲수소·연료전지 6000억 원 ▲항공우주·방산 7000억 원 ▲모빌리티 3조1000억 원 ▲미디어·콘텐츠 1조 원 등이다.



구 부총리는 지원방식 관련해 지분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대출 10조 원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다양화를 제시했다. 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도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다”고도 말했다. 현재 국민성장펀드 투자수요는 지방정부, 산업계, 관계부처에서 100여 건, 153조 원 규모가 접수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중 메가프로젝트부터 조속히 확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사양의 초전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임상3상 특화펀드(1500억원)와 1조원 규모의 바이오·백신펀드를 통해 K-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인수병합 등 글로벌 거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수출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펀드를 대폭 확대(2950억 원→4300억 원)하고 연구개발부터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까지 밀착 지원에 나선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 부총리는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과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내년부터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터미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도 2조 원으로 확대(현재 1조 원)해 터미널 등 물류자산 취득과 해외기업 인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여야 “여객기 참사로 부모 잃은 가족에 상속세 공제 검토해야”
▲이석연, 장동혁에 “집토끼 걱정 말고 다수 국민 뜻 좇아 정도 가 달라” /사진 뉴시스

▲한국노총 “민주당 ‘정년연장 연내 입법’ 공약 공염불…태도 돌변”
▲與, 18일 당무위서 ‘최고위원 선거인단·당규개정’ 논의

▲이 대통령 “왜 임대주택 자꾸 분양해 팔아치우나…‘가짜 임대’ 바꿔야”
▲경실련 “5개 부처 퇴직자 재취업 90% ‘줄통과’…관피아 개선 시급”

“더 얇고 빠르게”… 삼성·LG ‘유리기판’ 미래사업 속도전

시장규모 79억弗→4년내 108억弗

삼성전기 세중에 생산라인 구축
2027년 상용화 목표 삼성전자 협력

LG이노텍 구미에 파일럿라인 구축
AI서버용 고밀도 패키징 시장 겨냥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 삼성전기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리기판이 부품업계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주요 부품사들의 수장들 역시 유리기판 시장의 개화 시점을 거론하며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은 지난해 79억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9년 108억 5000만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성장률은 6.6%로 추산된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계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유리 재질로 대체한 것으로, 얇고 표면이 매끄러워 미세 회로 구현 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반도체 패

키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어 고성능 AI칩을 중심으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유리기판 사업 준비에 한창이다. 삼성전기는 세중사업장에 유리 기판 시범생산 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일본 스미토모화학그룹과 유리기판의 핵심소재인 글라스 코어 제조를 위한 합작법인(JV) 설

립도 추진 중이다. 글라스코어 생산 거점지는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 평택사업장으로 결정됐다.

또한 삼성전기는 모회사이자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기는 2027~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성전자와 협력해 AI 및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에 유리기판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초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경쟁사 대비 투자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본격적인 유리 기판 시장은 오는 2027년~2028년 열릴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LG이노텍도 유리기판 사업을 겨냥해 R&D 강화와 파일럿 라인 구축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회사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유리 기판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으며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R&D 조직에서 개발을 진행 중이다.

LG이노텍은 지난 1분기 구미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 2027년~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리 인터포저보다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리 코어 기판을 우선 개발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AI서버용 고밀도 패키징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최근 LG이노텍의 수장인 문혁수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반

도체 기판 사업을 회사의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3월 주주총회 후 “유리 기판은 2~3년 후에는 통신용 반도체에서, 5년 뒤에는 서버용에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야만 하는 방향”이라며 “올해 말 유리 기판 시제품 생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글로벌 고객사 대상 프로모션도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기판은 대형화가 불가피한데, 크기가 커질수록 휘거나 발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유리 코어 기판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잡아줄 수 있는 대안으로 기판의 평탄성과 열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난도가 높은 만큼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주요 부품 기업들이 실제 양산을 염두에 두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위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로 결국 파산

法, 회생절차 폐지 보름만에 선고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신고해야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1년 넘게 인수자를 찾지 못하며 회생을 모색했으나 끝내 무산되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6일 오전 11시 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1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지 보름 만이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주관하고 채권자 배당 등을 담당할 파산관재인으로 이호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파산 선고와 함께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내년 3월 17일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채권액 확정과 향후 영업 폐지 혹은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은 예정된 수준이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달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1년 가까이 새 주인을 찾는 인수합병(M&A)에 실패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해 온 큐텐그룹의 계열사다.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시작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그해 8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번 선고로 ‘티메프 사태’의 당사자인 큐텐 계열사 3곳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며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생존에 성공했다. 반면, 위메프는 지난달 10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이날 파산이 확정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손종국 기자 handbell@

‘친환경’ SMR 추진선 기술주도권 잡는다

조선업계 ‘차세대 노형’ 개발 로드맵

탈탄소 규제가 선박 연료 지형을 흔들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선이 친환경 선박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용융염원자로(MSR) 기반 원자력 추진선을 놓고 정부와 조선·원자력 업계가 개념설계와 사업모델 검증에 나서며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 원자력 세미나’에서 해양 SMR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했다. 1만 5000TEU급 컨테이너선과 17만 4000㎥급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에 100 MWth급 MSR를 적용하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MSR 추진 LNG운반선 개념설계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미

국선급협회(ABS)·라이베리아 기국이 참여한 공동개발(JDP)로 추진돼 지난해 9월 ABS와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기본 승인(AiP)을 획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월 미국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에서 SMR 기술을 적용한 1만 5000TEU급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개념 설계 모델을 공개했다. 해당 설계는 MSR을 염두에 둔 개념 설계로 ABS로부터 AiP를 받았으며 초임계 이산화탄소 기반 추진 시스템과 방사선 차폐 설계를 적용했다.

MSR은 SMR급 MSR 노형으로, 경수로(PWR)와 달리 고체 연료봉이 아닌 우라늄-용융염 혼합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상압(약 0.1~0.2MPa) 조건에서 600℃ 이상 고온 운전이 가능하다. 고압 증기 폭발 위험이 구조적으로 낮고, 고온 열원을 활용해 탄소비용이 부과되는

환경에서 효율·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20~30년 설계수명 동안 재급유 없이 운항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맥시마이즈마켓리서치는 글로벌 MSR시장은 지난 2023년 177억 1000만 달러에서 오는 2030년 415억 5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연평균 성장률 12.95%). 한국은 KAERI를 중심으로 원전기술을 개발 중이며, KAERI·삼성중공업은 지난 2023년부터 정부 사업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내년 해양용 MSR 개념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SMR 분야에 오는 2030년까지 약 1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는 초기 운전 조건 검증 단계로, 지난해 5월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에서 연료 주입 전 접촉면 590℃ 예열을 전제로 과도 열해석을 수행해 열 동결 방지와 히터 용량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韓·英 FTA 개선협상… 車 관세혜택 확대

산업부, 韓 수출품 원산지기준 완화
K-뷰티·푸드 무관세 적용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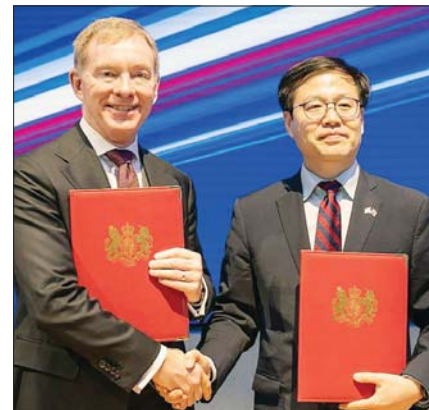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이 타결됐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됐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한·영 FTA를 우선발효했다. 이후 협정 발효 2년 내 후속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원협정 조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총 6차례 개선협상과 5차례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이번에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는 무관세 당사국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컸던 만큼, 관세 혜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K-뷰티·K-푸드도 문턱이 낮아졌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당사국에서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공정을 수행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원재료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활용하더라도 국내 최종 생산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산업부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영국 고속철시장을 추가 개방해 기존의 비대칭을 시정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해 AI 등 신기술 기반 신서비스를 개방,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영국 진출 기업의 인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담겼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엔지니어·설비 유지 보수 인력의 수월한 입국을 보장하고, 영어 능력 요건이 없는 비자 타입 활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인력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파견도 허용된다. 바이오·IT 분야 전문인력의 입국·체류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국과의 양자 FTA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해 양국 문화콘텐츠 보호 규범을 확립한 것도 주요 성과다.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 활성화와 K-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50대 조기퇴직 현실로… 주요 기업 ‘제2의 삶’ 지원 나서

불안한 중장년층 직장인

평균 퇴직연령 男 51세·女 48세
개인 넘어 사회 지속가능성 영향
기업, 경력 재설계 등 해법 마련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는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기업에 다니고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고 명문대생 아들이 있다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정작 김 부장 본인은 50대의 젊은 나이에 은퇴와 불안정한 현금 흐름, 자녀 교육비 등을 걱정하며 살아간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제2의 삶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층 직장인들의 노후설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16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다닌 직장)



지난 10일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퇴직 연령은 남성 51.3세, 여성 47.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는 65세이지만 실제 회사를 떠나는 시점은 15년이나 빠르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직원들의 퇴직 후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중장년층 직원을 대

으로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만 50세 이상 직원으로 기본연봉의 50%에 남은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최대 6년까지만 인 정해 기본연봉의 300%가 최대치다. 또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며 별도 경력개발비 10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휴가비와 차량 추가 구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현대위아도 만 50세 이상 직원들을 대

상으로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연간 급여의 3년치를 희망퇴직금으로 지급(자녀학자금도 포함)하며 1년간 창업과 재취업, 자산관리 등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LG화학 등 계열사도 이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인생설계를 돕기 위한 '브라보 라이프 디자인' (Bravo Life Design)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GLD(Green Life Design)라는 퇴직 후 삶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BLD는 퇴직

후 재취업, 건강관리, 자산관리 등 다양한 생애설계 교육을 제공한다.

반면 반도체 업계는 우수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기술 인재의 정년을 없애고,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 제도(Honored Engineer·HE)'를 2018년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우수 기술 인재를 붙잡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은퇴 후에도 실무와 후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도 2022년부터 우수 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시니어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지면서 중장년층 일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중장년 고용 지원 확대와 주요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이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거래 확대… 환헤지 '탄력적 집행방안' 마련

원·달러 환율 연고점 위험

‘전략적 환헤지’ 내년말까지 연장
“외환당국 개입 여부가 단기 방향 결정”

국민연금이 연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진정을 위해 외환당국과의 통화스와프, 전략적 환헤지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 환헤지 시 시장 가격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적 집행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도 최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고환율 대책 마련에 돌

입한 만큼, 유관기관의 적극 개입을 통해 환율이 진정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올해 말 만료되는 국민연금공단과 한은의 통화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기관 간의 스와프 한도를 650억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통화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시 필요한 달러를 한은의 외환보유고에서 조달하는 방법이다. 빌린 금액을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만큼 해외 투자 시에도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환율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최근 해외투자를 확대하며 달러 수요를 늘리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연장·확대를 통해 달러 현물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 억제를 위해 '전략적 환헤지'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일부 해외자산을 선물환 매매하는 방안이다. 환율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매매하는 만큼 시장에 달러가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알려지면서 환헤지만으로는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던 만큼,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수시로 환헤지를 진행하는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시장의 예측을 어렵게 해, 전략적 환

헤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가 단기간 환율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만 유독 약세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달러 약세와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이 원화 추가 약세 우려를 충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 수준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가 주목된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고객 건강을 위한 신뢰의 기업 유한양행 100년의 신뢰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정품 확인은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제품 구매 시 인증 마크가 부착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세요.



유한양행

내년 부동산 ‘전방위 옥죄기’… 거래·대출·세제 모두 바뀐다

거래 신고 강화로 계약 검증 재정비
자금조달 기준 세분화해 투명성 제고

외국인 매입 규제 확대로 수요 관리
대출 위험기준 상향해 유동성 조절

월세·청약 공제 확대해 부담 완화
양도세 혜택 축소로 안정 기조 유지

내년에는 정부의 수요 억제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거래 관리가 강화되며, 세제 변경도 예고되어 있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택 매매계약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자전거래나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산 시장의 교란행위가 가능했다.

◆ 불법 자금조달·투기 차단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바뀐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한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바뀐다. 또한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만 해당 의무가 적용됐다.

내년 2월 10일부터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납세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체류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8월 26일부터 1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해당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대출규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대출도 조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기준을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2026년 1월에 조기 시행된다.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해 적용하는 것은 내년 4월부터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작을수록 낮게 산정한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보증금 등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 적용했다.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는 0.3%를 적용한다.

세제 변경 사항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모두 확대했다.

다음달부터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 부부 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 단위의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15~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다. 다만 급여와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각각 3년씩 연장된다.

청약저축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폐업 증가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연장을 거듭해 2028년까지 유지된다.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바뀐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은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일 경우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가로구역 기준과 함께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함께한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작은 순간들로
매일을 채웠길 바랍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순간이 행복해지도록

Maxim
커피라는 행복



한화오너 3세, 한화에너지 지분 20% 매각

상장준비·승계구도 정리 본격화

김동원 5% 김동선 15% FI 구주 매각
증여세 납부·신사업 투자 재원 확보용

한화그룹 오너 3세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 오너 3형제가 지분 전량을 보유해온 한화에너지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지배구조 정비와 승계 구도 정리에 본격 착수했다. 증여세 재원 마련과 신사업 투자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상장을 염두에 둔 구주 매각으로 사실상 경영권 승계의 큰 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에너지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동원 사장이 보유한 지분 5%와 김동선 부사장이 보유한 지분 15%를 재무적투자자(FI)인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지분을 매각한 두 사람은 확보한 자금을 증여세 등 세금 납부와 신규 사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로 한화에너지 지분 20%가 1조1000억원에 거래되면서 기업가치가 재차 부각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한화에너지의 기업 가치를 4조~5조

원 수준으로 평가해왔는데, 이번 거래를 감안하면 향후 상장 시 몸값이 5조원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을 경영권 승계의 후속 정리 수순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승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비상장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에서 구주 매각이 이뤄지며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 김동관 부회장의 지분 매각은 없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두고 장남을 중심으로 핵심 계열사에 대한 그룹 지배력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FI의 프리 IPO 투자 성격이 짙은 만큼, 수년 내 상장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화에너지는 올 초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을 IPO 대표주관사로 선정했다. 통상 주관사 선정 이후 상장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했다”며 “재무적 안정성과 신용도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AI 3대 강국의 가능성을 키우는 LG

다양한 가능성이 AI를 만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LG는 AI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만들어갑니다



LG디스커버리랩

청소년 대상 연간 3만 3천명 이상, 체험형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LG에이머스

청년 대상 연간 5천명 이상, 산업데이터 활용한 실전형 AI 전문가 육성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교육부 인가, 글로벌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사내 대학원 학위과정

미래, 같이



‘지역기업 전력요금 차등화’ 등 지역발전 해결책 머리 맞대

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

與, 차등전기요금 도입 적극 검토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 여부는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 따라 논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소를 찾아 ‘지역 발전’을 주제로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법부가 살피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정에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최고위원, 김주영 국회 여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원이 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양 측은 지난 9월 한미관세협상 타결 전 만나 기업의 우려사항을 청취한 바 있는데, 이날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의는 74개 지역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지역 문제 해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포럼을 개최하고 메가 샌드박스 등 방



정청래(왼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에서 열린 민주당-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법을 제시했지만, 여러 이슈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정답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역의 전력 시스템, 지역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하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소멸돼 가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을 만나면 다 지역 소멸을 이야기 한다”며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기업유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이런 국가소멸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좋고 또 국가는 또 지역 소멸 위

기를 극복하는 데 좋고 그래서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요건 중 하나로 전기요금 문제를 꼽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향엽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기업의 전기 문제를

두고 전력요금 차등화 요구가 있었다”며 “분산에너지법 45조에 의하면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당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 현재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끝나는 대로 상의를 해서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상의가 침체된 태양광 생태계를 진흥시키기 위해 생산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는 현재 기재부에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어서 결과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과 상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권 대변인은 “(이 외에도) 여러 제안이 있었는데, 적극 검토하고 정부 부처하고 상의해서 한 달 이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답변을 드려서 불확실성을 걷어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탈모·비만 약물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민의힘, 지방선거 앞두고 위기감 분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李 대통령, 3년 전 공약 다시 꺼내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 고민해야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주문
건강보험소 특사경 인원투입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탈모 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었다. 또 최근 국내 주가지수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으며,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청년층이 건강보험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탈모 치료약 지원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비만 문제와 관련해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강보험은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원)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영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

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수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조 단위 건보 재정이 새고 있지만 긴 수사 기간을 틈타 범죄자들이 수익을 은닉해 징수율이 낮다고 호소해 왔다.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경찰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대폭 단축해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고 환수하는 것이 특사경의 핵심 목표다.

/서예진 기자 syj@

재선·초선의원 모임서 목소리
당 지도부 투쟁우선 기조 ‘비판’
국민 마음 읽은 전략·설계 필요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에 드린 위기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대표를 선출하는 등 당동혁 당 대표의 투쟁 우선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 데 모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모임인 ‘대안과책임’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잇단 악재가 터져나옴에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0% 초중반에 정체된 모습이다. 일각에선 지도부 차원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안과책임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건의하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약속 실천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목표에 나아갈 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어디로 향해야느냐가 중요한데, 당은 보수정당으로서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심을 한 마디로 하면 ‘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 정서를 헤아리는 현실 진단 능력이 있는지의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지 출발해야 하는데, 아직도 진영논리에서 허덕이고 있다”면서 “이 점이 국민이 국민의힘을 못 믿는 것이다. 저쪽은 신나서 내란몰이에 몰두하는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모임을 갖고 박상웅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은 42명으로 전체 107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박 의원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모임은 정치적 단체라기보다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을 우선하는 초선 모임”이라고 말했다. 당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의원은 “오늘 그걸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깥에 오해가 생길 거 같아 빠른 시일 내 낱을 잡아 당 안팎의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임 초선모임 대표인 김대식의 의원은 모임 시작 전 기자들에게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과 설계가 더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특약)가족 2인 이상 결합하면
보험료 5%를 할인받는

삼성화재 마이핏



삼성화재 마이핏
자세히 알아보기

시글백적 대가족?
보험료 할인!

삼성화재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

이 상품은 2인 이상 가족이 같은 '마이핏' 보험 가입을 할 경우 가족결합 영업보험료 할인 특약을 제공합니다. (마이핏 1, 2, 3, 8종 간 가입 시 가족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족범위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3955호 (2025.11.14~2026.11.13)

증권IB·저축은행 수장 교체… 변화 보다 ‘안정’에 방점



6개 계열사 CEO 인사

KB증권 IB부문 후보에 강진두
저축은행 대표이사 후보 박산업

5개 계열사, 현 대표이사 재추천
이달 중 최종심사 후 확정 예정

KB금융이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했다.

KB금융지주는 16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개최해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KB증권 등 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신임 대표이사 후보는 KB증권 IB부문에 강진두 현 KB증권 경영기획그룹장 부사장, KB저축은행에 박산업 현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대표 부행장이다. KB증권 WM부문과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



강진두 KB증권 IB부문 대표이사 후보

부동산신탁의 경우 현 대표이사를 재추천했다.

KB증권 IB부문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강 부사장은 기업금융, 인수금융, 글로벌 등 다양한 IB 영역을 거치며 시장 경쟁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영업과 경영관리를 두루 경험한 균형감을 기반으로 안정적 세대교체와 지속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



박산업 KB저축은행 대표이사 후보

라는 평가를 받았다.

KB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추천된 박 부행장은 디지털, 마케팅을 아우르는 경험을 토대로 KB저축은행을 키위뱅크(Kiwibank) 중심의 디지털 전문채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또한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은행과의 시너지 창출 역량도 겸비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흥구 KB증권 WM부문 대표이사

는 선임 이후 고객 가치 중심 영업기반 강화 및 초개인화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노력을 통해 WM 자산규모를 확대하는 성과를 시현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구분육 KB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리스크관리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장기인보험 점유율을 개선하는 등 시장지위를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재임기간동안 운용자산(AUM)과 당기순이익을 균형감 있게 성장시켰으며, ETF·연금·TDF 등 핵심 영역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성과창출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빈종일 KB캐피탈 대표이사는 ‘KB 차차차’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추진을 통해 수익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내실성장을 위한 우량 자산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 실행력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재현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는 부동산PF 시장 경색 장기화 등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에서도 내부 현안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와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완수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추위는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방식 전환과 시장·고객의 확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을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며 “추천된 후보자들은 각 계열사의 내실있는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KB금융이 고객과 시장, 주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금융그룹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줄 바란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는 이달 중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종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재선임된 대표이사의 임기는 1년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은행 희망퇴직’ 연령 낮아지고 위로금 줄어

신한, 18일까지 희망퇴직자 접수
근속 15년 이상 40세 부터 대상
농협, 31일 발령… 20개월치 임금 지급
우리, 10년이상 재직자 희망자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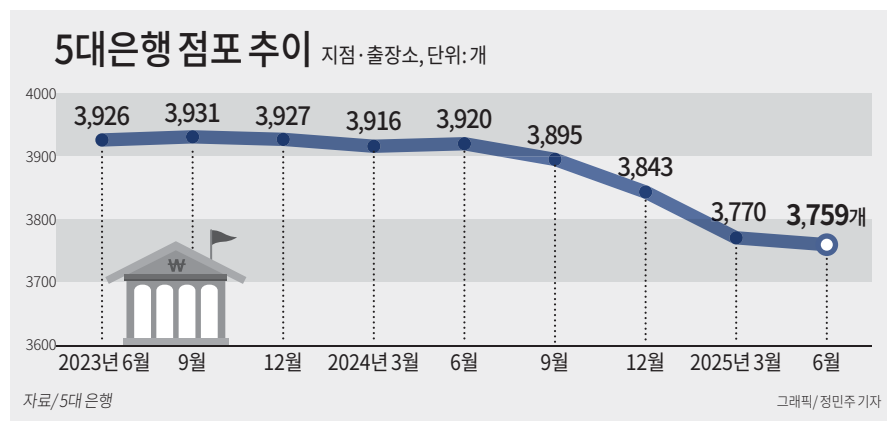
연말을 맞아 은행권 전반에 희망퇴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인력감축이 은행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50대에서 40대로 연령층도 낮아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는다. 희망 퇴직일은 오는 2026년 1월 2일로,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7년 이후 출생 직원이 대상이다.

4급 이하 일반직원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직원으로 만 40세부터 대상이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출생 연도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으로 책정됐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969년생 직원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28개월, 근속 10년 이상 40세 이상 일반 직원은 평균 임금의 20개월을 지급받는 다. 발령일은 오는 31일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7월 준정년 특별 퇴직을 시행하며 근속 15년 이상의 만



40세 이상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받았다.

우리은행도 올초 1월 2일부터 7일까지 입행 후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이달 말 희망퇴직을 신청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 대상 연령이 2022년 1972년생에서 지난해 1974년생으로, 1년 만에 대상 나이가 2년 낮아진 바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2023년에 18~31개월치 임금이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됐지만, 2022년까지만 해도 23~35개월치가 지급됐다. 희망퇴직 처우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연령을 낮추고 있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구조 개편 때문이다.

은행의 국내 점포(지점, 출장소)는 ▲2023년 6월 3926개에서 ▲2024년 6월 3920개 ▲2025년 6월 3759개로 급격히 줄었다.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영업점 기반의 인력 활용도가 떨어졌고, 대면 중심 업무에서는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고정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직원 수는 1년 사이 각각 534명, 681명 줄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총당금적립 전이익은 올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100만원, 1억 600만원 증가했다. 인력 감축이 사측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역삼센트럴자이 특공 경쟁률 256대 1

43가구 모집에 총 1만1007명 몰려
24일 당첨자 발표, 내달 5일 계약

‘10억 로또’ 청약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에 1만 명 이상이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된 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에서 43가구 모집에 총 1만1007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 255.97대 1이다.

유형별로는 생애 최초 전형 7가구 모집에 가장 많은 4884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신혼부부 17가구에 4382명이 몰리고 다자녀 가구(1629명), 노부모 부양(87명), 기관추천(25명)이 뒤를 이었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서울 역삼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로 규모가 작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는 3.3㎡당 8067만원이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 20억1200만원, 전용 84㎡ 26억9700만~28억1300만원, 전용 122㎡ 37억9800만원이다.

국민평형인 84㎡ 분양가도 30억을 밑돌아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지난달 인근 구축 아파트 개나리래미안은 전용 84㎡가 35억원에, 역삼푸르지오 전용 59㎡는 29억 6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역삼센트럴자이는 강남이란 입지에 더해 교통 인프라, 명문 학군까지 강점으로 꼽힌다. 입주는 오는 2028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헤우이엔씨, 양주 주상복합 대체시공 수주

지하 5층~지상 38층 규모 2개동
아파트 243세대, 오피스텔 56실 등

종합건설사 헤우이엔씨(☞)가 경기 양주시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대체시공을 수주했다.

헤우이엔씨는 경기 양주신도시 덕계역 인근에 들어서는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의 승계공사를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건물은 아파트 243세대, 오피스텔 56실, 상가 등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시행사가 신탁사와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맺은 현장이다. 대체시공사로 선정된 헤우이엔씨는 신탁사 및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관계자 변경을 완료했고, 기존 하도급사를 중심으로 승계계약을 협의하며 지난 달 중순부터 승계공사에 들어갔다.



경기 양주시 주상복합건물 조감도. /헤우이엔씨

송충현 헤우이엔씨 대표는 “이번에 수주한 건물은 양주시 랜드마크 건물인 만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축적된 대체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 우수한 품질로 주어진 기한내에 준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KB국민은행, 현대차·기아 협력사 금융지원

총 1000억 규모 협약보증 우대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그룹, 기술보증기금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현대차·기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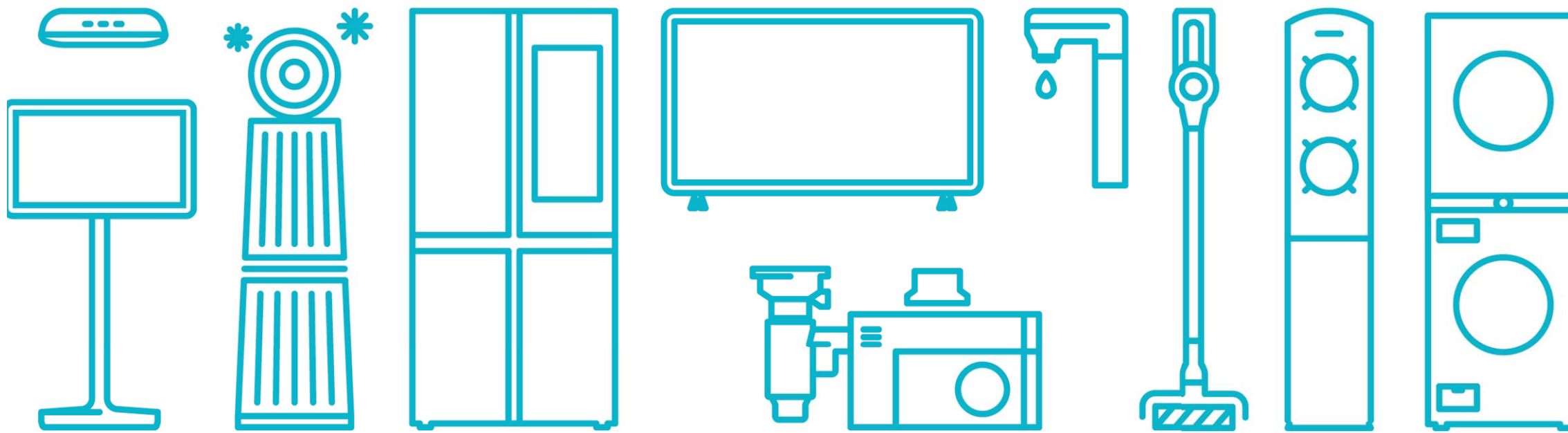
체결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업무협약에 이은 후속 협약이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협력사에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금융지원은 현대차·기아가 출연한 5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

원한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현대차·기아와 함께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지원 대상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이며, 기업당 대출 가능금액은 50억원 이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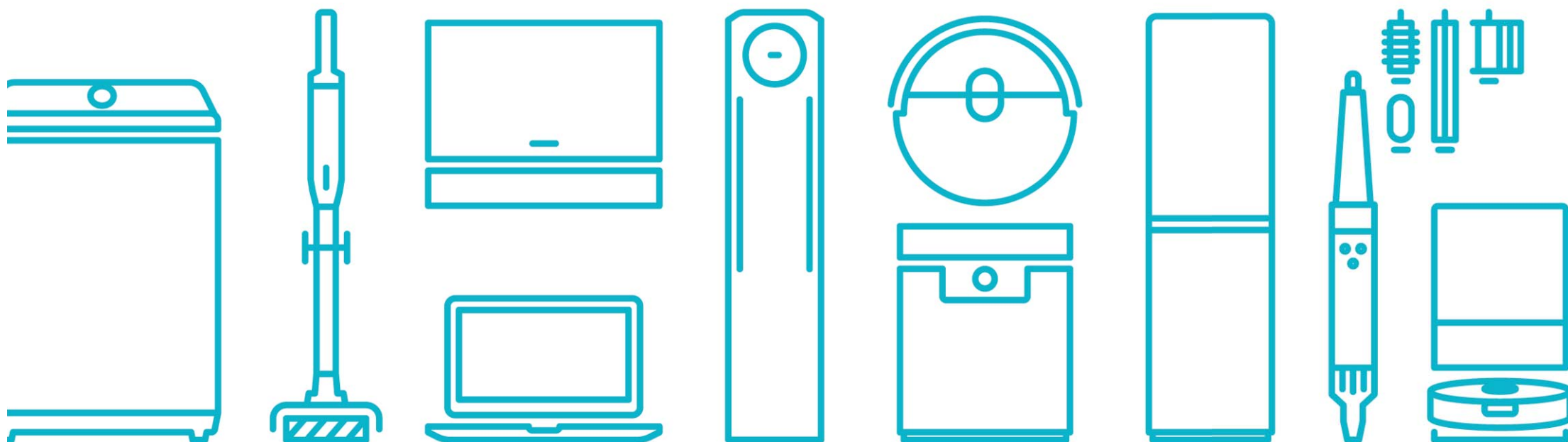
특히, KB국민은행의 추가 금리할인 혜택과 현대차·기아의 이차보전, 기보의 전용보증을 결합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LG전자, ‘마이크로RGB 에보’ 첫 선 차세대 프리미엄 LCD TV 기준 제시

미리보는 CES 2026

광원 단위로 RGB LED 독립 제어
‘트리플 100% 컬러 커버리지’ 인증
‘3세대 알파11 AI 프로세서’ 탑재

LG전자가 최신 마이크로RGB 기술과 LG 올레드만의 정밀한 광원 제어 기술을 융합해 크게 화질을 높인 ‘LG 마이크로RGB 에보’를 앞세워 차세대 프리미엄 액정표시장치(LCD) TV의 새 기준을 제시한다.

LG전자는 내년 1월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LG 마이크로RGB 에보(모델명: MRGB95B)를 최초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마이크로RGB는 LCD TV의 필수 구성요소인 백라이트에 쓰이는 광원의 크기를 초소형으로 줄이고, 기존 백색 대신 적색·녹색·청색 LED를 광원으로 사용해 색상 재현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얼마나 정밀하게 LED 백라이트를 제어하는지와 RGB의 각기 다른 파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술력에 따라 비슷한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고객이 경험하는 화질은 달라지게 된다.

LG전자는 마이크로RGB 에보에 13



LG전자는 내년 1월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LG 마이크로RGB 에보(모델명: MRGB95B)를 최초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

년째 글로벌 OLED TV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LG 올레드를 통해 축적된 정밀한 광원 제어 기술을 적용해 일반적인 LCD TV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화질을 구현했다. 자발광 화소를 픽셀 단위로 컨트롤하는 올레드 TV의 정교한 기술을 마이크로RGB TV에 적용, RGB LED를 광원 단위로 독립 제어해 생생한 화질을 선사한다.

이를 위해 LG 마이크로RGB 에보에는 2026년형 올레드 TV 신제품 라인업의 프로세서와 동일한 듀얼 AI 엔진 기반의 ‘3세대 알파11 AI 프로세서’가 탑재된다. 업계 유일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용 화질·음질 AI 프로세서

의 강력한 성능으로, 화면 밝기와 명암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마이크로 디밍 울트라’ 기술을 통해 LCD TV의 한계를 뛰어넘는 화질을 완성했다.

LG 마이크로RGB 에보는 색 정확도 측면에서도 압도적이다. 이 제품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인터텍으로부터 ‘트리플 100% 컬러 커버리지’ 인증을 받았다. 방송 표준(BT.2020), 디지털 시네마 표준(DCI-P3), 사진·그래픽 표준(Adobe RGB)을 모두 100% 충족해 고화질 방송과 영화, 사진 및 영상 편집 등 다양한 사용 여건에 최적화된 색감을 재현한다는 의미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에너지기업 파트너십 강화

“가전 사용자들 전기요금 혜택 제공”

삼성전자가 삼성 가전 사용자들에게 한층 강화된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전력·에너지 기업 ‘에넬’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 세탁기를 구매한 고객에게 2년간 최대 180KWh의 세탁용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180KWh는 유럽에서 삼성전자 A등급 세탁기를 약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에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누구나 삼성전자 세탁기를 구입한 뒤 스마트싱스에 연동하면 무료 전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영국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 가스’와 함께 삼성전자 제품 구매자 전용 ‘삼성 주말 세이버 고정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집안 전기요금을 50% 깎아준다.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통해 사용자는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에너지 기업은 전력 수요가 낮은 낮시간으로 전기 사용을 유도해 잉여 전력 활용도를 높이고 전력망 과부하도 막을 수 있다.

/차현정 기자

브리티시 가스의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삼성전자 제품을 새로 구매하면 ‘삼성 주말 세이버 고정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전제품은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 오븐, 전자레인지, 무선선풍기, 로봇청소기가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 ‘쿨블루’와도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삼성전자 세탁기 사용시 전기요금이 무료인 ‘무료 세탁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9월부터는 건조기 사용시까지 전기요금 무료 혜택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미국 에너지 기업 ‘리프’와 협업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의 소비전력을 최적화하는 ‘플렉스 커넥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력수요가 몰려 전력망이 불안정할 때 스마트싱스 ‘AI 절약모드’를 활용해 자동으로 연결된 가전의 소비전력을 최적화한다.

삼성전자 B2B솔루션팀 박찬우 부사장은 “삼성전자 가전 사용자에게 다양한 전기요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스마트싱스를 지속 고도화하고 스마트 가전과 연결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과 사용자 편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LFP 양극재 전용 공장 세운다

포항 영일만 산단 공장 건설안 승인
2026년 착공… 2027년 하반기 양산

포스코퓨처엠이 급증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생산에 본격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LFP 양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6년 착공해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LFP 양극재는 전량 ESS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2023년 중국 배터리 소재 제조업체 중웨이신소재(CNGR)와 합작 설립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 추진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를 시작으로 LFP 양극

재 생산능력을 최대 연 5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8월 CNGR과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FINO)와 ESS용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왔다.

LFP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등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출력은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고 수명이 길어 ESS와 보급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활용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기존 삼원계 배터리 생산라인을 LFP로 전환하는 등 시장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LFP 전용 공장 투자를 통해 ESS 중심의 신규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고 양극재 사업의 제품군과 고객 기반을 동시에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 기존 설비 활용에도 나선다. 현재 포항 양극재 공장의 삼원계 NCM 양극재 생산라인 일부를 LFP 생산라인으로 개조해 2026년 말부터 LFP 양극재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전기차와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고객 요구가 세분화되면서 차세대 양극재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함께 LMR 양극재 파일럿 개발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전기차용 울트라 하이 니켈 양극재와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파일럿 개발도 마무리하며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항공,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기술 연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 체결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력해 개방형 무인기 연구를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1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다중 임무장비 운용을 위한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대

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해당 과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4개월간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다.

대한항공은 2029년 5월까지 무인편대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협약으로 임무별 센서와 장비를 모듈화해 장착·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개발 예산은 약 193억원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이번 협약으로 무인기의 경제성과 작전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기술을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K-MOSA 기반 개방형 개념을 무인편대기 체계 개발 사업에 적용해 미래 항공 작전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방자주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BYD 아토3.

BYD ‘아토 3’, 8개월만에 2600대 판매

보조금 적용시 2000만원 후반대
안전기능·편의 사양 등 기본기 탄탄

BYD코리아의 첫 공식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BYD 아토 3’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신뢰를 쌓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토 3는 11월까지 누적 2617대 판매를 달성하며 8개월여의 짧은 기간 만에 가장 주목받는 전기 SUV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판매 가격 3150만원인 아토 3와 3330만원인 아토 3 플러스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지역에 따라 2000만원 후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해 동급의 내연기관 SUV와도 경쟁을 펼칠 수 있을 만큼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아토 3의 인기 비결은 가격만이 아니다. 합리적인 가격 위에 기술력과 안전성, 주행 감각, 공간 활용, 편의사양 등 전기차의 기본기를 균형 있게 갖췄다.

BYD가 독자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플랫폼 3.0을 기반으로 한 아토 3는 균형 잡힌 주행감, 차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 정숙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을 전면에 내세워 ‘믿을 수 있는 전기차’라는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BYD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차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관통 테스트와 46톤 트럭 압력 테스트 등 극한 조건에서도 화재나 폭발이 없어 뛰어난 안전성과 내구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BYD의 핵심기술이다.

아토 3는 공간 활용 면에서도 차별화된다. 전장 4455mm, 휠베이스 2720mm의 차체를 기반으로 뒷좌석 레그룸 1000mm를 확보했고, 트렁크는 기본 440L, 최대 1340L까지 확장 가능하며 V2L 기능이 제공돼 레저나 캠핑에도 적합하다.

실내는 12.8인치 회전형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선루프, 고급 소재 시트와 스티치 마감 등 다양한 고급 편의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가격대 대비 품질과 활용도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보여준다.

/양성운 기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등 ‘안전’ 특화… 韓 ‘블루버드’ 목표”

(美 100년 넘은 스쿨버스 제조사)

르포

통학버스 제조사 ‘아이버스’

한정된 韓 시장서 소수 제조사 경쟁
中 전기차까지 가세하며 경쟁 심화

자동 발판·경광등 등 혁신 시스템
車 기술기·출발까지 통합제어 적용
동남아 수출·IPO 등으로 성장 계획

‘어, 어, 어, 넘어질 것 같은데…’

전북 전주 덕진구에 있는 아이버스 본사. 이 회사 강주일 대표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은 자동차 검사 시설에서 직접 제작한 전기스쿨버스를 놓고 ‘최대안전 경사각 테스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의 걱정은 기우였다. 버스 차체가 꽤 기울어졌는데도 절대 넘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타는 버스인 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버스를 만들 것이다.”

‘아이버스’. 회사명 그대로 아이들이 타는 버스를 만드는 회사다. 현대차가 제조해 25인승 통학버스를 공급, 전체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아이버스를 포함한 2개의 중소기업이 나머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수요가 한정돼 있기도 하고 진입 장벽도 높다. 그만큼 시장 플레이어가 적다.



강주일 대표가 김제 신공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근엔 이런 틈새를 비집고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와 가뜩이나 제한된 시장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그동안 정체돼 있다가 지난해 1월부터 신고가 불가능해진 디젤차가 빠지고 전기차로 점점 대체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24년 2000억원대였던 시장은 올해엔 약 3000억원대로 늘었다. EV전기통학버스 6개 차종, 11개 모델을 중심으로 내년엔 1500억원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2028년에는 기업공개(IPO)에 도전할 것이다.”

강 대표는 2003년 아이버스의 전신인 성진전자를 창업했다. 이듬해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 현대차에 어린이보호차시

스템을 OEM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노비즈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 아이버스의 통학버스차 생산 능력은 하루 8대, 한달 약 200대 정도다. 물론 차량 본체는 현대차 등을 통해 납품받는다. 전주 본사 외에 최근엔 전북 김제 백구농공단지내에 5000평 규모의 신공장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하루 생산대수는 15대까지 늘어나게 됐다.

강 대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10년 가량 근무하며 차량 안전, 안전 운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 하차확인장치, 3점식 어린이 전용 시트, 통학버스 안전을 관리하는 차량 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특허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강 대표는 “잡자는 아이를 확인할 수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가 전북 전주 본사에서 경사각 테스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있는 하차확인장치는 아이를 두고 차문을 오랫동안 잠가놔 안타깝게도 질식사하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도록 도와준다”면서 “2점식이 아닌 3점식 어린이 전용 시트는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앉았을 때 목이 조이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버스가 특허받은 ‘통학버스 자동 제어 통합 시스템’은 GPS 전자동 제어를 통해 자동 발판, 스톱표지판, 표시등을 별도 조작 없이 전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해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차가 멈춘 후 출발할때까지 운전사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황색표시등이 1분에 60~120회 점멸하면서 승객들

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강 대표는 “어린이통학버스는 현재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의무화돼 있어 무조건 장착해야 한다. 단 운행기록 보고는 의무화되지 않아 이를 의무화해야 좀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할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버스는 소형·대형버스 개조를 위한 조립라인 뿐만 아니라 자체 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놓고 있다. 이때문에 같은 모델의 경우 첫 차만 별도로 인증을 받은 후 2호차부터는 자체 검사, 인증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양산 가능한 차량은 스타리아 11인승부터 46인승 대형버스까지 다양하다.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차량도 추가 개발 중이다. 또 현재 중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노인 보호차량도 타깃이다.

“미국에는 100년이 넘는 스쿨버스 제조사 블루버드가 있다. ‘한국의 블루버드’가 우리의 목표다. 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통학버스차를 수출하는 것도 목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에게도 IPO를 통해 기회를 줄 것이다. 오너만 부자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협력사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전주(전북)=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스타트업·대기업 협업으로 혁신 빛났다

중기부, ‘민관협력 성과공유회’
스타트업 9곳에 중기부 장관상
‘투자 유치 풀 추천’ 등 혜택도

에코프로와 엠버로드가 협력한 ‘인공지능(AI) 기반 이차전지 제조 공정’, CJ ENM과 에프앤엘코퍼레이션이 개발한 고단백·저당질 셰이크, 우미건설과 포비콘의 AI 기반 공사 건적 효율화 플랫폼 등이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우수 사례로 꼽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후 서울 마포 더블유디지에서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를 열고 통합경진대회 결선 우수 스타트업과 협업대기업을 선정·시상했다.

올해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120개사 가운데 신제품·서비스 개발·적용 등 우수 성과를 창출한 엠버로드 등 스타트업 9개사에게 중기부 장관상과 상금이 돌아갔다.

엠버로드가 에코프로의 제안으로 개발한 공정 효율화 솔루션은 연간 약 55억원의 재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솔루션은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내 추가 공정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에프앤엘코퍼레이션은 개발한 셰이크 판도를 위해 CJ ENM의 마케팅·판매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CJ ENM으로부터 30억원의 직접 투자도 유치해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AI 환율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함께 한 농협은행과 스위치원, ‘AIoT 기반 안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업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오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업 성과가 나왔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 생산성 증대, 신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 효율화와 같은 실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DNA를 기업 전반에 확산하고 우리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한솔제지, 재생펄프로 ESG 경영 강화

우유팩 재활용 펄프 ‘GR 인증’ 획득

한솔제지가 우유팩을 재활용해 생산한 펄프 제품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GR(Good Recycled) 인증’을 획득했다.

16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일반 종이 제품이 아닌 재활용 원료에 대해 GR 인증을 획득한 것은 제지업계에서 한솔제지가 처음이다. 이번 인증으로 한솔제지는 자원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친환경 원료 생산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인증받은 재생펄프는 시중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우유팩을 질량 기준 50% 이상 투입해 종이의 주원료인 펄프로 재활용한 제품으로 천연펄프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일반 우유팩의 경우 23년 기준 재

활용률이 22.8%에 불과해 철이나 알루미늄캔, 유리병 등 다른 소재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R인증은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한솔제지의 우유팩 재활용 펄프는 우유팩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다양한 종이 제품 생산시 고품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제지부문에 최조로 원료 인증으로서의 적정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GR인증은 1997년 도입된 정부 제도로, 재활용 제품의 품질·안정성·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만 부여한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GR 인증 획득은 한솔제지의 친환경 기술 역량과 ESG 경영 의지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설립때 창업 제외기업, 7년내 요건 충족 시 ‘창업기업’ 인정

중기부,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설립 당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한 사업자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령)’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 인정 범위 확대다. 그간 설립 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나중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도 창업기업이 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사

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개설이 잦은 창업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7년 내 창업 제외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4호·5호)를 해소하면, 해소일을 기점으로 창업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다.

A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의 B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정 전에는 A 사업을 접더라도 B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A 사업을 폐업할 때 B 사업이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그밖에 ▲법인과 소속 임원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소유하는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과점 주주가 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신생 법인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 사업 개시 기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창업 인정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사업 개시일은 최초 법인 설립 등기 시로 판단한다.

/김승호 기자

기보, 車 부품사 경쟁력 위해 1000억 보증

현대차·기아·KB국민은행과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현대자동차, 기아, 국민은행과 손잡고 10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공급,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기보는 현대차, 기아, KB국민은행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위축,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인 수요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현대차그룹 협력사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현대차·기아의 특별출연금 50억원과 국민은행의 보증료 지원금 15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SKT, MNO 안정화·AI 전환 예고

“글로벌 빅테크와 속도경쟁 나서야”

정재현 CEO, 취임來 첫 타운홀 미팅
기본원칙 강화해 신뢰 회복 속도
핵심관리지표 ‘ROIC’로 체질개선
AIDC 경쟁력 강화, AI 지속 전환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후 첫 타운홀 미팅에서 이동통신(MNO) 경쟁력 강화와 AI 중심의 전사 혁신을 선언하며 ‘변화관리’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재현 SK텔레콤 CEO는 16일 서울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취임 후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동통신(MNO)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AI 사업의 빠른 진화를 위한 전사적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CEO는 “시장과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과거 방식에 머무르는 ‘활동적 타성’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며 “실패의 책임은 경영진이 질 테니 구성원들은 창의적으로 도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의 속도를 높ی겠다는 뜻에서 스스로를 ‘변화관리 최고책임자’로 규정했다.

또한 “SKT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라며 “근원적으로 탄탄한 체질을 구축해 새로운 혁신 기회를 만들고,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에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신·AI·AX·기업문화 전반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정재현 SK텔레콤 CEO가 16일 서울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첫 타운홀을 열고, 단단한 MNO(이동통신 사업)와 미래 핵심인 AI 사업의 빠른 진화를 위한 전사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SKT

정 CEO는 통신 사업의 본질을 ‘고객’으로 규정하며, 고객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가치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품질·보안·안전 등 기본 원칙을 강화해 고객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해 핵심 관리지표도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에서 ROIC(투자자본이익률)로 전환한다. ROIC는 자본 효율성과 가치 창출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중장기 경쟁력과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된다. 이는 외형 성장보다 자본 활용의 내실을 중시하는 경영 전환을 의미한다.

AI 사업과 관련해 정 CEO는 “그간 실험과 인큐베이션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는 강점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 속도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I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제조 AI와 독자 AI 모델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AI 전환(AX)에 대해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닌 전사적 생존 과제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전 구성원 대상 AI 툴 활용 지원 ▲업무용 AI 개발 프로세스 정립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AX 대시보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조직문화의 방향성으로는 ‘역동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구성원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고, 회사는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정재현 CEO는 “구성원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행 역량과 내적 안정성을 갖출 때 조직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드림팀’을 강조했다. 또 국민심서의 구절을 인용해 “구성원의 목소리를 성실히 듣고, 겸손과 존중의 자세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B, B tv ‘에이닷’ 누적이용 1억건 돌파

셋톱박스 개인화 기능 추가확대

SK브로드밴드는 Btv에 적용한 AI미디어 에이전트 ‘에이닷’의 누적 이용 건수가 1억 건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9월 SK텔레콤의 생성형 AI ‘에이닷’을 B tv에 적용해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의 음성 대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연스러운 멀티턴 대화를 통해 콘텐츠 탐색과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홈 화면 상단에 에이닷을 배치하는 UI·UX 개편을 통해 시청 이력과 이용 패턴을 반영한 개인화 추천 기능을 강화했다.

이 같은 AI 고도화 효과로 에이닷의 월간 사용자 수는 올해 1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실제 대화 건수는 6배 이상 늘었다. 시청 이력과 선호 장르, 실시간 방송 패턴 등을 분석한 AI 추천 콘텐츠

의 시청 비율도 2배 이상 상승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달부터 셋톱박스 기종별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화 기능을 추가 확대한다. 고객 프로필과 시청 흐름을 기반으로 신규 작품과 쿠폰 등을 직관적으로 안내하고, 특정 작품의 정보 확인 시 연관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약 20만 편의 전 장르 콘텐츠를 제공하는 월정액 상품 ‘B tv+’ 전용 탐색 기능도 새로 도입한다.

AI 활용은 품질 관리 영역으로도 확장됐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10월 AI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 ‘아쿠아(AQUA)’를 도입해 시청 중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AI가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방송 설비부터 네트워크, 셋톱박스, TV까지 전 구간에서 약 740개 지표를 24시간 실시간 분석한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치지직’, 5년간 LCK 중계권 확보

치지직-를 계정 연동 시청 드롭스 도입

네이버가 글로벌 e스포츠 리그 ‘LCK’와 콘텐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용자 중심 스트리밍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네이버는 16일 라이엇게임즈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LCK LPL LEC 등 해외 주요 리그와 월드 챔피언십 MSI 퍼스트 스탠드 등 국제대회 중계권 ▲롤파크 네이밍 독점 권리 ▲LCK 공식 스폰서십 권리 등이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e스포츠 생태계 확장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는 2026년부터 5년간 LCK 국내 중계권을 확보했다. 동시에 LCK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며 스트리밍 플랫폼 독점 파트너 자격으로 LCK IP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병행한다. 네이버는 ‘치지직’을 중심으로 중계 시청 경험과 커뮤니티 연계를 강화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CK 공식 경기장 롤파크의 명칭도 ‘치지직 롤파크’로 변경한다. 해당 명칭은 네이버지도 등 주요 플랫폼 정보에 반영한다. 경기장 내부에는 치지직 브랜딩 좌석 존을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롤파크에서 네이버 주건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리더(오른쪽)와 라이엇게임즈 오상현 아시아태평양 퍼블리싱 및 e스포츠 총괄이 만나 ‘네이버-라이엇 게임즈’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운영하고, 치지직 전용 운영 부스를 마련해 현장을 찾은 e스포츠 팬의 브랜드 체험을 확대한다.

네이버는 국내 최초로 네이버 치지직 계정과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을 연동하는 시청 드롭스 기능도 도입한다. 이용자는 특정 경기를 일정 시간 이상 시청하면 게임 아이템 보상을 받는다. 네이버는 향후 쇼핑 예약 페이 등 자사 주요 서비스와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치지직은 이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글로벌 최대 규모 e스포츠 대회 EWC의 한국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생성형 AI 전화응대 서비스 선택

오픈AI 기술 활용 ‘에이전틱 콜봇’
고객 의도·맥락 파악해 완결형 응대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오픈AI 기술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구독형 콜봇 서비스 ‘에이전틱 콜봇(스탠더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콜봇은 고객 상담을 자동화하는 AI 전화 응대 서비스다. 여기에 에이전틱 AI를 적용하면 고객의 의도와 대화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비교적 복잡한 문의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상담 목적에 맞는 완결형 응대가 가능하다는 설

명이다.

기존 규칙 기반 콜봇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반복 문의에만 대응할 수 있었다. 반면 에이전틱 콜봇은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지식 검색(RAG)을 활용해 사전 학습 없이도 다양한 표현과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통해 상담 시간이 단축되고 응대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제조·유통·서비스·병원·대학 등 다양한 업종의 고객센터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AI가 전화를 받아 기존 예약을 확인하

고 예약 변경을 처리한 뒤 완료 안내 문자 발송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을 위해 고객 대화와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보호 가드레일을 적용했다. 대시보드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계 기능을 통해 운영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오픈AI의 멀티모달 LLM을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추론을 실시간 API로 처리하는 ‘STS(Speech-to-Speech)’ 기능과 다중 LLM을 연동한 에이전트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K AX, AI로 산업 중대재해 예방·관리

SHE 서비스 ‘CEO 안심 패키지’
안전관리 현황 등 실시간 파악 도와

SK AX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안전·보건·환경(SHE) 서비스 ‘CEO 안심 패키지’를 16일 선보였다.

‘CEO 안심 패키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업장별 잠재위험을 분석하고, 작업자의 안전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한

편,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통합 안전관리 솔루션이다.

SK AX는 “중대재해 책임 강화와 기업가치 훼손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장 경영진이 안전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영진이 안전관리 현황과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

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해당 로드맵에는 위험성 평가 의무 강화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등 기업의 예방 중심 안전투자를 전제로 한 과제가 포함돼 있다.

‘CEO 안심 패키지’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 특화된 AI 적용이다. ▲비전 AI를 활용해 사고 발생과 원인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SHE OT(운영 기술) 솔루션’ ▲사고 현황과 고위험 작업, 법규 준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리스크 대시보드’ 등을 통합했다. /김서현 기자

넷마블, 10년 연속 ‘韓 100대 브랜드’ 선정

전년비 5계단 상승한 41위

넷마블이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타이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10년 연속 선정됐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스타이 특허받은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인 ‘BSTI’를 기반으로 상위 100개 브랜드를 선정하는 인증 제도다.

이번 조사는 총 230여 개 부문과 1000여 개 대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브랜드스타 증권거래소의 모의 주식 거래를 통해 산출된 브랜드 주가 지수 70%와 정기 소비자 조사 지수 30%를 결합한 BSTI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넷마블은 이번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51.3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계단 상승한 4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넷마블은 ‘세븐나이즈 리버스’, ‘뱀피르’, ‘RF 온라인 넥스트’ 등 자체 IP 기반 신작 게임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아울러 글로벌 게임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일본 도쿄게임쇼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브라질 최대 게임 행사인 브라질 게임쇼에서도 신작을 공개하며 남미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또 ‘AI 거품론’ 쓰나미… 가상자산 등 위험회피 심리 확산

AI, 천문학적 투자에도 수익성 의문
반도체 대형주 직격… 급락 이어져
비트코인 한 때 8만 6000달러 붕괴

16일 코스피는 2.24% 급락해 3999.13에 마감했다. 10거래일 만에 4000선이 무너진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각각 1.91%, 4.33% 급락했다. 닛케이 225 지수(닛케이평균주가)도 1.56% 하락했고, 홍콩 항셱 지수와 중국 상해종합 지수도 각각 1% 넘게 떨어졌다.

이날 아시아 증시 급락세의 ‘트리거’는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였다. 브로드컴의 호크 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주 실적 발표 후 가진 설명회에서 “1분기 비 AI 매출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변동이 없다”면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비 AI 매출보다 총마진이 더 작다”고 밝히자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시장 전반에서 주식, 가상 자산 등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후퇴했다. 가상 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15일(현지시간) 한 때 8만6000달러 선이 붕괴됐다.

◆ 다시 점화한 거품론

AI 거품론은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으로 AI 붐이 시작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를 주도하는 미국 테크 그룹에 연계된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거래량이 올해 9월 초부터 최근까지 약 90%가 급증했다고 파생금



코스피가 전 거래일(4090.59)보다 91.46포인트(2.24%) 내린 3999.13에 장을 마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종가가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38.83)보다 22.72포인트(2.42%) 하락한 916.11에 거래를 종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71.0원)보다 6.0원 오른 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융상품 청산기관 DTCC의 자료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CDS는 기업이 부도를 냈을 때 돈을 지급하는 금융 상품으로, 업황 악화 위험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한다.

이번 CDS 거래량 증가는 특히 데이터센터 등 AI 설비 투자로 수십억달러의 부채를 조달한 클라우드(전산자원 대역) 서비스 업체 오라클과 코어위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메타플랫폼(메타)도 올해 10월 AI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관련 CDS 거래가 대폭 늘었다고 FT는 전했다.

주요 테크 기업에 연계된 CDS는 AI 낙관론이 대세였던 올해 초엔 수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주요 업체들이 거금을 들여 AI 연산용 반도체를 사들이고 데이터센터 증설을 단행하면서 신용 위험 우려로 CDS의 인기가 커지기 시작했다.

현재 메타, 아마존, 알파벳(구글 운영사), 오라클 등 4개사가 올해 가을 AI 프로젝트를 위해 융통한 자금은 880억달러(약 129조7000억원)에 달한다. JP모건은 이런 투자 적격 등급의 기업들이 조달하는 AI 관련 자금이 2030년경에는 1조 5000억달러(약 221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한다.

천문학적 투자에도 성과는 적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컨설팅 회사 ‘테네오’가 매출 10억달러가 넘는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3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CEO들은 현재 진행 중인 AI 프로젝트가운데 비용을 웃도는 수익을 낸 사례가 절반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올 한 해 AI 관련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보안, 법률, 인사 등에서 AI 적용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거품은 절대 오지 않아”vs “AI 거품엔 면역 없다”

국내에서 거품론을 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AI 거품론에 대해 “절대 오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배 총리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투자를 사업적·연구성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잠재 경제 성장률을 3% 이상 높인다면 AI 투자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에만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반면 미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부회장 대니얼 핀토는 지난날 한 연설에서 “아마도 AI 부문에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조정은 해당 분야의 다른 부분과 S&P500 지수,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높은가

치 평가를 정당화하려면 특정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생산성 향상이 되더라도 시장이 현재 가격에 반영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도 AI 거품론을 거론했다. 그는 영국 BBC 인터뷰에서 “인터넷 산업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분명히 과도한 투자가 많이 있었고 AI도 마찬가지로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AI 거품 붕괴 시) 면역을 있을 회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대형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B of A)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AI 거품을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잠재적 위험으로 꼽기도 했다.

한국증시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탄탄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코스피 전망치로 5000 수준을 제시했다.

그 근거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설비투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실적/수출 모멘텀 개선, 기업 거버넌스 개혁 등이 거론됐다. 특히 2026~27년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집중 투자하는 AI 데이터센터가 많이 지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고대역폭 메모리(HBM)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변압기, 전력기기, 냉각기 등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부스팅되면서 증시에 좋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화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美 AI 실적주 ‘흔들’… 버블붕괴 vs 저가매수

해외주식 Click

순매수 1위 SOXL… 4억67만달러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10위권 진입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종목과 ETF를 거침없이 쓸어담았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하는 등 월가에서 ‘AI 패니 셀’ 우려가 불거졌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조정이 아닌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

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67만달러(약 5889억원)에 달했다.

순매수 2위는 엔비디아로 2억2840만달러(약 3357억원)가 유입됐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관련주 전반의 조정 국면에서도 대표 종목으로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3위에는 알파벳 클래스 A가 2억 126만달러(약 2958억원) 순매수되며 이름을 올렸다.

나스닥100지수관련 상품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도 7333만달러(약 1078억원)가 유입되며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개별 종목을 가리기 어려운 국면에서 AI 비중이 높은 대표 지수에 베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한 종목에도 매수세는 이어졌다. 오라클은 같은 기간 1억 1767만달러(약 1731억원) 순매수됐다. 오라클은 실적 발표 이후 매출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했지만,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다. 브로드컴 역시 9402만달러(약 1382억원) 순매수되며 상위권에 올랐다. 브로드컴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전망을 제시했음에도 마진율 하락을 이유로 주가가 11% 넘게 빠지는 등 전형적인 ‘패니 셀’ 양상을 보였다.

이 외에도 AI와 자율주행 기대를 함께 반영한 레버리지 베팅이 이어졌다. 테슬라가 1억5102만달러(약 2220억원)

순매수되며 5위를 기록했고, 테슬라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볼 2배 ETF(TSL2) 역시 1억 4934만달러(약 2194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3.75%로 낮췄지만, 내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시기와 정도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놔다. 금리 인하에도 AI 실적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시장에서는 ‘AI 버블 붕괴’ 우려와 ‘조정 후 재도약’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월가의 AI 패니 셀이 과도한 반응인지,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다음 국면을 향한 베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테크TOP10 ETF 순자산 4조1000억 달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순자산이 4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순자산은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초 이후에만 약 9500억원 증가한 규모다.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테크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Indxx US Tech Top 10 Index’로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세계 시장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들을 포함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핵심 성장 산업에 간편하게 분산 투자 가능하다.

이번 12월 정기변경을 통해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는 신규 종목 편입(팔란티어) 및 편출(티모바일)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미국 빅테크 산업의 변화와 트렌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상장 이후 미국 빅테크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며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는 현재 국내 최대 테마형 ETF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이세훈 “금융사, 정보보안 강화 팔 건어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정기총회

이 수석부원장, CISO 역할 강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잇따른 대형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 확보 없이는 금융산업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사진)과 박상원 금융

보안원장,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약 210명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사의 보안 수준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정보보안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아래,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에 정보보안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CISO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CISO는 IT·보안 리스크를 진단하고

조직 전반의 보안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라며 “권한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정보자산을 빈틈없이 식별·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퇴직자 계정 삭제 등 기본적인 보안 활동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
인터파크 평점 9.4!

현실 캐릭터들의 집합소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오세요!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MERRY
SALE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사진 강상욱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interpark | 문의 02-332-4902

‘해외 물류거점’ 40개로 확충 수출입 공급망 안정화 나선다

해수부, 해외 공급망 안정화 확대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추진
전략 화물 해외 터미널 투자 강화
친환경·스마트 항만으로 현대화
2030년까지 물류 경쟁력 선도

정부가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공공지원 물류센터를 현재의 9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린다. 불안정한 국제 공급망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개최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 방침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 등의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외 물류 거점 국가는 11개 국가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교역량, 해외 직접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



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2030년까지 40곳(현재 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정부와 국적 선사,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국적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컨 터미널 확보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투자처 발굴과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 터미널의 지분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곡물 등 전략 화물의 경우 해외 벌크 터미널 확보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면, 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이 공동사업자(컨소시엄)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1조 원), 항만 스마트화 펀

드(5000억 원) 등을 통해 국내 노후 터미널의 현대화도 지원해 에너지, 곡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진출 검토 단계에서는 물류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장 정보를 공공부문이 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 제공하는 현지 타당성 조사·컨설팅 지원 한도도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분석의 정밀성을 높인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불확실한 물류 환경에 있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입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교육부

AI 감사시스템 도입

감사 처분 신뢰도·일관성 강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를 도입한다. 감사 처분 전 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처분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이런 내용의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사업을 16일 공고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정과제 99-1. 초·중·고 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교육 분야 감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AI 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ISP를 수립,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뒤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감사시스템에는 ▲감사보고서 초안 생성 ▲감사업무의 영역별로 특화된 심층 질의·답변 ▲관련 사건 분석과 행정소송 결과 예측 ▲비문 교정과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 교정 기능을 탑재해 감사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인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최종 기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까지 지원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구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
주 4.5일제 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돼, 현재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 50%를 지급하던 것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 상한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60% 지원)은 150만원에서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시스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위라벨+4.5 프로젝트)과 관련해, 사업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제주 100MW 韓 최대 해상풍력 준공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한림서
연간 6만5000가구 전력 공급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제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전은 지난 15일 웨이브제주 컨벤션홀에서 100MW급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이 주도해 설립한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연간 234GWh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도민 약 6만5000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공급한다.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한전이 주도하고 전력그룹사가 개발·건설·운영 전 과정에 참여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건설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

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히 국내 건설사와 기업들이 참여해 100% 국산 기자재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해상풍력은 발전산업을 넘어 에너지 신기술·신산업으로 확장되는 분야로, 향후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345kV 해상변전소 핵심 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제주한림 사업은 해상풍력 최초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한림읍 수원리 등 인근 3개 마을 주민 10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받는 구조로, 지역상생과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계획된 예산과 일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공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홍문표, 정부에 짝퉁 K-푸드 단속 촉구 (aT 사장)

해외지사 주도 시식 확대 제안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일본산 K-푸드 모조·유사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 사장은 16일 세종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라면·김밥 등의 이른바 ‘짝퉁 K-푸드’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K-푸드 가운데 수출이 잘 되는 품목은 라면, 김치, 김밥, 떡볶이 등”이라며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서 짝퉁이 범람하고 있다. 국가가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수출 상위 10위 품목이 중국·일본산에 밀려 침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장은 각국에 K-푸드 홍보 코너를 만들자고 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짜 우리 농식품을 시식하게 해 일본·중국산과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또 “인위적으로라도 공공기관(해외지사)을 통해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손발을 다해 한국 농산물 홍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는 식의 특수한 방법이라도 써야 할 만큼 정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실태를 보고하고 공유했다며, 대통령실이 농식품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중국·일본산 가격이 우리 상품 대비 3분의 1 내지 2분의 1 수준”이라며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진짜 K-푸드의 수출에 큰 타격·위기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성평등·상생 가치 실현 김장나눔 행사

결혼이민여성·북한이탈주민 참여

농협경제지주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함께 ‘성평등 및 상생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남 함평 대동면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결혼이민여성 및 북한이탈주민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농협 관계자는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게 나눔으로써 성평등 및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민숙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은 “전국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김장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동참하고자 농가주부모임도 김장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성평등과 상

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연합회는 여성 농업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에 힘쓰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민여성 농업 교육 등) ▲NH농촌현장봉사단 활동 참여 ▲밀란잔 및 도시락 나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 행사에는 박민숙 연합회장과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이광일 전남 본부장, 이상의 함평군수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절주 문화에 사라지는 송년회… 무알코올·개인 소비자 공략

주류업계 연말특수 붐

업계, 재무건전성 강화·고정비 절감
안정적 판매로 마케팅·전략 전환
스타협업 ‘단독주류’로 차별화 시도

연말이면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늘던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송년회·회식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음을 지양하는 절주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주류시장의 연말 특수는 사실상 붐과 국면에 들어섰다. 절주문화 확산과 내수 침체가 맞물리며 주류업계는 성수기를 기대하기보다 구조적 위기에 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실제 주류 소비는 구조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인당 주류 소비량은 2008년 9.5ℓ로 정점을 찍은 뒤 2020~2021년 7.7ℓ까지 떨어졌고, 2023년에도 7.8ℓ에 머물렀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도 고위험 음주율은 1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과음 문화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내수 침체는 곧바로 실적에 반영되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무알코올 맥주.

/뉴시스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695억원, 영업이익 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 22.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339억원으로 22.6% 줄었다. 고환율에 따른 원부자재·물류비 부담에 내수 소비 둔화가 겹친 결과다.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3분기 전체 실적은 음료와 해외 사업 성장으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으나, 주류 매출액은 57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주류업계는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14년 만에 대표이사를 교체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영업·마케팅 출신이 아닌 ‘관리통’ 장인섭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한 것은 외형 성장보다 비용 통제와 재무 건전성 강화를 우선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하이트진로에서 30년 동안 근무해오며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고정비 절감에 나섰다. 업계 1·2위가 동시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은 이번 침체를 단기 불황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케팅과 제품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연말 특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상 속 소비자를 겨냥한 저도주·무알코올·제로 슈거 제품이 전면에 등장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제로 슈거 소주 ‘새로’, 하이트진로의 무알코올 맥주 ‘하이트제로.00’, 저도 과실탄산주와 증류주 라인업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오비맥주는 ‘카스 라이트’와 ‘카스 0.0’ 제품군을 양대 축으로 삼아 시장 주도권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자주 술을 마시는 소비자보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논알콜 맥주 시장 규모는 지난해 70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오는 2027년엔 946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가 중장기 해법으로 꼽는 것은 해외시장 확대다. 하지만 국내 주요 주류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아직 10~20% 수준에 그친다. 브랜드 인지도, 현지 유통망, 각국의 규제 등 넘어야 할 장벽도 많다. 그럼에도 동남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K-콘텐츠 영향력이 커지며 소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호다.

유통 채널에서는 편의점이 새로운 실험의 중심에 섰다. 세븐일레븐, GS25, CU 등 주요 편의점들은 연예인·스포츠 스타와 협업한 ‘단독 주류’를 앞세워 차별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명인의 취향과 스토리를 담은 상품은 MZ세대의 경험 소비 성향과 맞물리며 빠른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일부 협업 상품은 사전 예약 완판, 팝업스토어 매출 급증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스타 협업은 비용 부담과 재고 리스크라는 양면성을 안고 있다. 모델료와 로열티 등 고정비가 높고, 수요 예측에 실패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내수 침체 속에서 팬덤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스토리텔링 주류는 당분간 유효한 돌파구로 평가받는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연말 특수라는 말 자체가 의미를 잃고 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라며 “고도수·단체 중심 시장에서 저도·개인·일상 소비로 축이 이동한 만큼 주류업계도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지방함량 줄인 참치파우치로 간편한 식사” 이마트, ‘칠레산 고등어’로 산지 다변화

오투기 ‘라이트앤조이’ 신제품
‘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 3종
기존 참치 대비 지방 30% ↓

오투기는 라이트푸드 통합 브랜드 ‘라이트앤조이(LIGHT&JOY)’의 신제품 ‘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 3종(사진)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간편식 수요 증가와 함께 지방과 칼로리 부담을 낮추려는 저감화 트렌드에 맞춰 개발됐다. 휴대성과 편의성을 갖추어 간편하게 개봉해 바로 먹을 수 있는 파우치 형태로, 기존 파우치 참치류 대비 지방 함량을 30% 줄인



것이 특징이다.

‘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는 ▲물밤과 당근으로 아삭한 식감과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살린 샐러드 타입의 ‘피크닉 참치’ ▲청양고추의 깔끔한 매운맛과 마요네스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룬 ‘청양마요 참치’ ▲스리라차 소스를 더해 이국적인 매운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매코매요 참치’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별도

조리 없이 샐러드, 까나페, 유부초밥, 타코 등 다양한 메뉴에 활용할 수 있어 가볍고 맛있는 한 끼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신제품 3종은 공식 자사몰 ‘오투기몰’을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

오투기 관계자는 “라이트앤조이 파우치 참치는 지방 부담을 낮추면서도 다양한 식사 대체 메뉴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라이트푸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에 진열된 고등어 모습.

/이마트

수입산 소고기 역시 산지를 다변화했다. 이마트는 오는 25일까지 ‘아일랜드 산 자양방목 LA갈비/찜갈비(1.5k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각각 4만9800원, 3만9800원에 선보인다. 이는 기존 미국·호주산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이다.

현재 2%인 관세가 2026년 7월부터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라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CJ온스타일-코스메카코리아 유망 K뷰티 브랜드 육성

투자형 K뷰티 글로벌 성장모델 구축

CJ온스타일이 글로벌 화장품 OGM(제조업자 개발생산)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와 손잡고 유망 K뷰티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CJ온스타일은 16일 코스메카코리아와 ‘투자형 K뷰티 글로벌 성장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코스메카코리아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와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회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유통사와 제조사가 단순한 상품 공급 협력을 넘어, 신진 브랜드 발굴부터 육성, 직접 투자까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계 최초의 사례다./손종욱 기자

현대百貨, 日 온라인에 ‘더현대 전문관’ 선포

오는 19일 온라인몰 ‘NUGU’ 통해
日에 K패션 브랜드 450여개 소개

현대백화점이 일본 내 K-패션 유통망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9일 일본 패션 플랫폼 스타트업 메다쿼터스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누구(NUGU)’에 ‘더현대 전문관(이하 더현대관)’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더현대관은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글로벌’ 매장의 온라인 버전으로, 국내 K패션 브랜드 450여 개를 현지에 소개한다. 현대백화점이 상품 수출입과 통관 절차를 총괄해 개별 브랜드의 해외 진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파트너사인 누구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2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플랫폼으로, 이용자의 70%가 20대일 정도로 일본 Z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특유의 팬덤 문화인 ‘오시카츠’ 트렌드를 겨냥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강화한다. ‘더바넷’, ‘오버듀플레이’, ‘시눈’ 등 SNS에서 인기가 높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입점시키고,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단독 상품도 기획해 선보인다.

이번 온라인 진출로 현대백화점은 일본 내 온·오프라인 채널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도쿄 파르코백화점 매장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도쿄 오모테산도 쇼핑몰 ‘오모카도’에 약 660㎡(200평) 규모의 ‘더현대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1순에 5980원… 최대 약 50% 저렴

이마트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칠레산 태평양참고등어’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가격은 1순(2마리, 850g)에 598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국산 간고등어 대비 25%, 최근 가격이 급등한 노르웨이산 대비 약 50% 저렴한 수준이다.

칠레산 고등어는 국산과 동일한 어종으로, 마리당 600~800g의 중대형 사이즈를 선별해 상품성을 높였다. 이마트는 최근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 쿼터가 30% 이상 감소하며 수입 단가가 2배가량 폭등하자, 이를 대체할 산지로 칠레를 낙점했다. 이마트는 향후 2026년까지 기존 노르웨이 물량의 절반을 칠레산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SSG닷컴, 유료멤버십 론칭알림 20만 돌파

내달 ‘쓱세븐클럽’ 선포

SSG닷컴은 다음달 선보일 예정인 유료 멤버십 ‘쓱세븐클럽’의 론칭 알림 신청 고객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쓱세븐클럽은 장보기 특화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식료품 결제 금액의 7%를 고정 적립해주며, OTT 서비스 ‘티빙(TVING)’ 이용권과 신세계백화점몰·신세계몰 할인 쿠폰 등을 결합해 혜택 체감도를 높였다.

파격적인 혜택 예고에 신규 고객 유입도 활발하다. SSG닷컴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일평균 신규 방문자 수

는 전년 동기 대비 87% 급증했으며, 신규 가입 회원 수도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SSG닷컴은 고객 성원에 힘입어 멤버십 출시 알림 신청 시 장보기 지원금 3000원을 즉시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은 SSG닷컴 앱이나 웹페이지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SSG닷컴 관계자는 “업계 최대 수준의 적립률과 OTT 혜택 등 직관적인 구성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원하는 날짜에 받는 ‘쓱배송’의 편의성과 결합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제2 밤 티라미수’ 찾아라… 편의점·이커머스, IP 경쟁 치열

흑백요리사 신시즌 기대감 고조
방송 콘텐츠-유통채널 결합 나서
편의점, 셰프 협업 등 신제품 발굴
이커머스, 프리미엄 밀키트 승부수

16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유통업계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시즌1에 출연한 셰프들과 상품 협업이 이어지며 방송 콘텐츠와 유통 채널의 결합이 흥행 보증수표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에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커머스까지 콘텐츠 낙수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협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편의점 업체다. 시즌1 당시 제작 지원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연 셰프와의 협업으로 최대 수혜를 입은 CU와, 이번 시즌 넷플릭스 공식 스폰서로 나선 GS25 간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CU는 흑백요리사 시즌1 최대 수혜자 중 하나다. 우승자 ‘나폴리 맛피어’ 권성준의 ‘밤 티라미수 컵’으로 250만개, 후속작인 빵으로 185만개의 판매고를 올리며 편의점 디저트 시장을 평정했다. ‘급식대



흑백요리사2 포스터.

/넷플릭스

가’ 이미영과 협업한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도 700만개 이상 팔려나갔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시즌1 당시 CU는 공식 스폰서가 아니었음에도 ‘밤 티라미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수혜를 입었지만, 이번 시즌은 상황이 다르다”며 “편의점 업계 중 유일하게 넷플릭스와 지식재산권(IP) 계약을 체결한 GS25가 작성하고 마케팅 주도권을 쥐고 갈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GS25는 최근 ‘흑백요리사’

시즌1 준우승자인 에드워드 리 셰프와 손잡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폭립&갈비함박 도시락’ 등 코리안-아메리칸 스타일의 간편식을 잇달아 선보이고, K-위스키 ‘기원x셰프 에드워드 리 에디션’까지 준비하며 주류 카테고리로 협업 범위를 넓혔다.

GS25는 시즌1에 출연한 ‘만찐남’ 조광호,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이모카 세 1호’ 김미령 등 인기 셰프들과 협업해 재미를 봤다. ‘장호준 명란감자 샐러드’, ‘철가방 마라샥’, ‘이모카세 도시락 김’ 등 관련 상품의 누적 판매량만 450만개를 넘어섰다.

이마트24는 시즌2 백수저 계급으로 출연하는 손종원 셰프와 이미 손을 잡고 샌드위치, 스과케티, 김밥, 도시락 등 프리미엄 먹거리를 협업 상품으로 내놓았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손종원 셰프가 마침 시즌2에 출연하게 되어 내부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시즌1 당시 셰프들과의 협업이 큰 화제가 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방송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역시 ‘스타 셰프’ 마케팅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경험이 있다. 세븐

일레븐은 안유성, 정지선, 최강록 등 유명 셰프와 손잡고 간편식 등 식품군을 선보이며 누적 500만개 판매를 기록한 바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셰프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SSG닷컴과 쉐리 등 이커머스 업체는 ‘프리미엄 밀키트’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지선, 이연복, 최현석 등 스타 셰프들의 레스토랑 간편식(RMR)을 꾸준히 선보인 이커머스 업체는 시즌2 출연진의 레시피를 활용한 고급 밀키트를 기획할 수 있다. 집에서 셰프의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려는 ‘홈다이너믹’을 공략해 편의점과 차별화된 높은 퀄리티로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시즌1 화제성 덕분에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넷플릭스 비밀 유지 계약으로 어떤 셰프가 상위권에 올라갈지 알 수 없기에 방송 공개 직후 화제성이 입증된 셰프를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신제품

애경산업 리큐 케어베어 한정판

애경산업은 스마트 액체세제 브랜드 ‘리큐’에서 케어베어 한정판 ‘퍼폼과워캡슐 에메랄드 블루밍향(사진)’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캡슐 하나로 세탁부터 냄새 세척, 향기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해 준다. 빨래 냄새를 강력하게 세척해 세탁 후 시트러스향과 자스민향을 전달한다.

특히 음식물, 피지, 미세먼지 등 생활 얼룩을 강력하게 제거하며 빨래 씬 냄새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아세트산을 99% 없앤다. 찬물에도 잘 녹는 용해력 99.9%의 프리미엄 필름을 사용해 제품력을 높였다. 또 72시간 향기 지속력까지 갖췄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하고 형광증백제, 파라벤 등 피부에 걱정되는 7가지 성분은 함유하지 않는 등 안전성도 고려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온 가족 의류 세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캐릭터 ‘케어베어’를 더해 ‘힐링’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독일·영국 등 유럽 안질환 시장 공략

‘아이덴젤트’ 출시국 지속 확대 국가별 맞춤형 직판 전략 펼쳐

셀트리온이 이달 초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성분명: 애피버셉트)’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덴젤트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다. 올해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아이덴젤트 바이오알과 사전중전허가사제(PFS) 두 가지 제형 모두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망막정맥 폐쇄성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 등에 쓰인다.



‘아이덴젤트’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국가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선 영국 내 3개 행정구역에서 개최된 국가보건서비스 입찰 수주에 성공하며 제품 공급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에는 영국 입찰 기관

가운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북부 잉글랜드 지역이 포함됐고 특히 해당 지역에서는 아이덴젤트가 바이오시밀러 중 유일하게 공식 등재됐다. 이와 함께 유럽 내 대표 입찰 시장 중 하나인 포르투갈에서도 아이덴젤트 발매를 완료해 전

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가 입찰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축적한 브랜드 신뢰도 및 직판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안질환 시장에서도 처방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브랜드가 지닌 높은 소비 신뢰도와 제품 선호도가 아이덴젤트 판매로 이어지도록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2026년까지 아이덴젤트 출시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유럽 각국의 의료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한편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아제약 ‘검가드’ 인터덴탈 브러쉬 치간칫솔

동아제약은 잇몸관리 전문 브랜드 검가드에서 ‘인터덴탈 브러쉬 치간칫솔’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잇몸을 보호하는 코팅 와이어와 치간 공간에 부드럽게 침투하는 V컷 브러쉬를 적용해 잇몸 부담을 줄이고 세정력은 높였다. 치간 간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0.4mm의 SSSS(4S)와 0.7mm의 SSS(3S)로 구성됐다. 한국인에게 적합한 가는 형태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 L자형 손잡이를 탑재해 가장 안쪽 어금니까지 손쉽게 닿아 세밀한 관리를 돕는다. 개별 위생캡을 더해 출퇴근·여행 등 외출시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이디야커피, 모든 음료 기본용량 확대

음료 체계 재정비… 메뉴 라인업 개편

이디야커피가 16일부터 음료 용량 확대와 메뉴 라인업 개편을 전국 매장에 본격 적용한다. 이번 변경은 8일 공개한 개편을 실제 매장 운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시작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더 큰 용량과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음료 사이즈 체계를 라지(L)와 엑스트라(EX)로 통일한 점이다. 기존에는 메뉴군별로 용량 기준이 다르게 운영돼 고객 안내나 매장 제조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정비를 통해 전체 음료가 하나의 체계 아래에서 일관되게 제공되도록 재정비됐다.

이디야커피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14온스(oz)로 제공되던 모든 음료의 기본 용량을 18온스로 확대하고, 기존 단일 사이즈로 제공되던 플랫치노, 셰이크 메뉴에 엑스트라(EX) 사이즈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음료의 평균 제공 용량은 약 28.6% 증가하며, 고객의 대용량 선호와 메뉴 사용 패턴을 반영한 선택 폭 확대에 중점을 뒀다.

용량 확대와 함께 메뉴 구성도 강화했다. 고객 요청이 많아 재출시되는 메뉴와 시즌·상시 메뉴 등 약 20여 종의 음료가 재정비되며 새롭게 선보이는 신상 메뉴까지 더해져 다양한 취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라인업이 확장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 4DPLEX, ‘SCREENX’ 글로벌화 박차

3D 시네마 기업 ‘리얼디’ 파트너십

CJ CGV 자회사이자 세계적인 기술 특별관 선도 기업 CJ 4DPLEX가 한층 더 강화된 SCREENX의 몰입감을 글로벌 관객에게 선사한다.

CJ 4DPLEX는 세계적인 3D 시네마 기술 기업 리얼디(RealD)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세계 2위 극장 사업자인 시네월드 그룹(Cineworld Group plc)의 극장 체인인 미국 리걸 시네마(Regal Cinemas)의 SCREENX 상영관에 RealD 3D 기술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리걸 시네마의 50여 개 스크린에 적용할 예정으로 연말 기대작 ‘아바타: 불과 재’ 개봉에 맞춰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CREENX의 양 옆으로 확장된 스크린에 RealD의 초고 화질 3D 기술이 결합하면, 정면 스크린은 RealD 3D로, 양옆 확장 스크린은 SCREENX의 파노라믹 비주얼로 구현돼 관객은 더 입체적이고 공간감이 강화된 시각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기존 SCREENX의 몰입형 관람 환경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기술적 진전으로 프리미엄 상영 포맷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CJ 4DPLEX 방준식 대표이사는 “SCREENX는 관객이 영화 속 세계를 더욱 깊이 체험하도록 설계된 포맷으로 RealD와의 협력은 SCREENX 비전을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광동제약, 가네스 듀얼샷

광동제약은 고품량 아르지닌과 글루타치온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가네스 듀얼샷’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네스 듀얼샷은 액상과 정제 2정을 한 포에 구성한 이중제형 스틱포 제품이다. 30g 액상에 L-아르지닌 4000mg, 정제 2정에 L-글루타치온 70mg을 담았다. 특히 정제는 지질막으로 감싸 체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리포솜 공법’이 적용된 글루타치온을 사용했다.

또 복숭아 풍미를 더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기존 바이알·병 타입 대비 부피가 작아 간편하게 휴대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시대를 읽다. 미래를 열다 한국외대만의 혁신

HUFS의 글로벌 경쟁력에 첨단융합학문을 더해
학생의 꿈과 성공을 위해 나아갑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Come to HUFS Meet the World!

가장 많은 국가와 교류하는 대학
102개국 613개 대학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양성 8개 학부 신설
Language & AI융합학부 / 반도체학부 /
Finance & AI융합학부 / AI데이터학부 /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 기타 융합학부

반도체 분야 5년간 7개 대학 중 1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2024 국가고객만족도(NCSI)
사립대학교 부문 2년 연속 2위

2024 혁신대학 세계총회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상 수상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고 등급, 114억원 지원

HUFS INNOVATION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K그룹, 연말 맞이 이웃사랑 성금 200억 기부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2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SK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200억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다. /SK그룹



KGC인삼공사, 규범준수·부패방지 통합 인증 획득

KGC인삼공사는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은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KGC인삼공사



오스템임플란트, 중동·북아프리카 진출 기반 마련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9일 서울 강서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트윈타워에서 이집트 ‘카이로시립대학교’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측은 임플란트, 보철 등 치과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정기 학술 세미나, 워크숍 등을 열어 그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카드, 저소득층 250가구에 김장김치 전달

우리카드는 연말을 맞아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고령인 동포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방화동 소재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저소득층 250가구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카드



신한은행, 현대자동차와 車 금융상품 개발 협약

신한은행이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금융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호식 신한은행 CIB그룹장과 김승찬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양사 간 협력 확대와 공동 상품 개발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다. /신한은행

‘中企 규제합리화 대상’ 유공자 55명 공로 포상

中企 옴부즈만, 시상식 개최

남부발전 정필준 차장 산업포장
방사청 정해일 사무관 대통령 표창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에서 한국남부발전 정필준 차장이 산업포장을, 방위사업청 정해일 사무관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한기성 차장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전사적 노력으로 최근 2년간 760건의 규제애로 발굴해 총 255건의 규제 개선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을 열고 기업 현장 활력 제고와 규제애로 발굴·개선에 기여한 공헌자 55명에게 포상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대상 시상식’에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막식을 하고 있다. /중기옴부즈만

먼저 산업포장을 수상한 정필준 차장은 협력사 납품대금 연동 계약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정해일 사무관은 소형드론에 특화된 표준감합인증기준을 제정해 중소기업

드론 제작업체의 감합인증 규제 장벽을 크게 낮췄다. 한기성 차장은 지역 의료기기 분야 현장규제 완화 및 지원의 공을 인정받았다.

이외에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는 규제 플랫폼 개발 및 규제정보 제공 기반 조성에 기여해 경제부총리 표창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기업호민관 제도 운영 및 기업관련 자치법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공동 활성화

中企연구원·청년기업재단

진단·처방, 촉진 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양측은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진단·처방하고, 중소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연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진단과 처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제약요인의 발굴과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자료·정보·통계의 상호 활용 ▲연구 성과의 공공 목적 활용 및 확산 ▲공동 연구 성과의 확산과 공공 목적을 위한 활용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왼쪽부터)한정화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협약은 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정화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 성과가 정책과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르노코리아, ‘르노 K-트립 시즌2’ 이벤트

대한민국 겨울풍경 명소 공유

르노코리아, 겨울 풍경 명소 공유하는 ‘르노 K-트립 시즌2’ 개최

르노코리아가 오는 31일까지 자사 차량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의 겨울 풍경 명소를 공유하는 ‘르노 K-트립 시즌2’ 이벤트를 실시한다.

르노 K-트립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전국의 겨울 명소에서 르노 차량과 함께 찍은 사진을 #르노케이트립 또는 #Renaultktrip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 하면 된다. 이후 르노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여름에도 경기도 내 여행 명소에서 르노 차량과 함께 여름 풍경을 담은 고객들의 사진을 공유하는 ‘르노 K-트립’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르노코리아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르노 K-트립 시즌2 이벤트 참가자 중 1등을 선정해 200만원 상당의 하나투어 여행상품권을 증정하고, 2등에게는 소피텔 엠베서더 프레스티지 스위트 숙박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또 르노코리아는 연말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

SK바사 “지역사회 실질적 지원 전달”

판교 본사에서 ‘행복상자 캠페인’
식품·방한용품 등 생필품 구성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본사에서 ‘행복상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해 행복상자 300개를 포장했다.

행복상자에는 즉석식품, 위생용품, 방한용품 등 겨울철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담겼다. 이 행복상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시설인 L HOUSE가 위치한 안동 지역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행복상자 전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희망메이커’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력해 생활환경 개선과 정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국타이어, 대전시 우수 체육선수 장학금

1997년부터 누적 1261명 지원

한국타이어가 지난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체육회관에서 ‘2025대전시 우수체육선수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형 한국타이어 문화담당 상무와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 우수체육선수 장학금 지원 사업은 1997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타이어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학교 체육위원회 추천 등을 통해 선발된 유망주 47명(초등 8명, 중등 15명, 고등 13명, 대학 11명)에게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양성운 기자

인사

◆키움투자자산운용 ◇ 상무 △ 허만갑 ◇ 이사 △ 김보경 △ 김연찬
◆키움증권 ◇ 부사장 △ 김영국 △ 박대성 ◇ 상무 △ 심창섭 △ 이원진 △ 정상협 △ 조영실

◇ 이사 △ 김 산 △ 김종필 △ 김종훈 △ 김희석 △ 박동진 △ 박준식
◆에프앤가이드 ◇ 부사장 선임 △ 지원 부문장·경영전략본부장 전민석 ◇ 상무 선임 △ 금융정보사업본부장 이경우

©M I/T, F, E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마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정신질환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시급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그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다루는 데 있어 '배제와 격리'의 관습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식을 고수해왔다. 배제는 특정 집단(장애인, 감염병 환자 등)을 교육, 사회, 공공장소 등에서 의도적으로 분리하거나 소외시키는 행위이며, 격리는 감염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타인과 물리적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정신질환인들은 사회적 낙인(Stigma) 속에서 비인격화되었고, 증상이 발현되면 정신병원과 같은 시설 수용 중심의 대응이 이뤄졌다. 특히 비자발적 입원의 높은 비율은 인권 단계로부터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깊은 외상(Trauma)과 고통을 경험했고, 지역사회와 격리된 정신병원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대 사회에서, 질병을 겪는 이들을 단순히 격리하여 문제를 은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국에는 고독사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신질환인에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근간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8%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을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는 보편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중증 정신질환인들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극심한 우울증 환자나 고립·은둔의 대상자와 같은 초기 개입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방적 돌봄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만의 영역이 아닌, 전 부처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주거, 고용, 재활 등 관련 부처가 역할을 통합하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개선 방안은 집과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대대적인 확대이다. 특히 '재가(在家)' 중심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충이 핵심이다. 단순히 치료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주고, 기본적인 가사 서비스 지원부터 산책, 동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여,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합돌봄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AI는 깔렸는데, 돈은 안 된다



기지 수첩
최 빛 나 (IT부)

국내 IT 업계에서 인공지능(AI)은 이미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검색과 메신저, 콘텐츠 추천과 광고 시스템까지 주요 서비스 전반에 AI가 적용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에 AI 요약과 추천 기능을 확대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반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AI가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 기본 옵션이 된 상황이다. 다만 AI 확산 속도와 달리 수익화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AI 도입 이후 사용자 경험과 체류 시간 개선 효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매출 구조 자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계에서는 AI 전환이 단기간에 실적 개선으로 직결되기보다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 차원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전략은 공통적으로 기존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색 정확도 개선, 대화형 서비스 고도화, 콘텐츠 추천 효율 제고 등을 통해 사용자 이탈을 막고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필수적인 선택이지만, 광고 단가 인상이나 신규 유료 서비스 확대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익화가 더딘 이유로는 서비스 구조 자체가 지목된다. 현재 제공되는 AI 기능의 상당수는 무료이거나 기존 서비스에 포함된 형태다.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AI는 매출 창출 수단이라기보다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AI 모델 고도화와 서버 운영, 인프라 투자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사업 모델 차이도 뚜렷하다. 오픈AI와 구글은 API 사용료나 구독 기반 모델을 통해 AI 자체를 상품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광고와 콘텐츠 유통 중심의 간접 수익 구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기술 확보 이후 이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IT 업계의 과제는 명확해지고 있다. AI를 도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AI로 어떤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기업용 솔루션, 유료 기능, 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지 못한다면 AI 투자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AI는 이미 깔렸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한국 IT 기업들에 AI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고정비가 될 것인가.

/vitn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12월 17일 (음 10월 28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속세를 떠나면 할 일은 더욱더 많아 더 부지런해야 할 것. 48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하루. 60년생 뒷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도리. 72년생 두루 배풀면 오후에 일이 순조롭게 해결. 84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나가야 할 터.

 소

37년생 직장에 이동수가 있으나 마음을 잡자. 49년생 붉은색이 행운을. 61년생 서류를 이치에 맞게 잘 작성하니 성과도 두 배다. 73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8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평온하다.

 호랑이

38년생 치과 진료를 늦추지 말고 낱을 잡도록. 50년생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둔다. 62년생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달기보다는 소통을 해라. 74년생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죽는데 허망하게 가지 않도록. 86년생 배우자의 의견존중.

 토끼

39년생 식탐을 줄여보면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될 듯. 51년생 상금을 타서 부모님께 달려간다. 63년생 머리가 아프나 오후에 일이 해결되어 감사함. 75년생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한탄. 87년생 남쪽에서 귀인이오니 거래가 성사.

 용

40년생 구실에 주리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52년생 업무량이 많다면 쉬운 일부터 해 나가보라. 64년생 분노에 맞게 물류를 가져오라. 76년생 일은 말보다는 문서로 해야 신속 정확. 88년생 봉사는 항상 기본 마음으로.

 뱀

41년생 이제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53년생 막혔던 업무가 해결되는 날이라 감사. 65년생 금전 문제로 종일토록 우울하다. 77년생 외출하여 직접 부딪쳐 추진하면 소득이. 89년생 정신우장을 더 단단하게.

 말

42년생 고생한 성과가 좋아 재물이 들어온다. 54년생 참외밭을 지날 때 신을 고쳐 신지 마라. 66년생 시기상조라 인내심을. 78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에는 일진이 신통치 않다. 90년생 일이 계속 막히니 집안 하수구를 살펴보자.

 양

43년생 신념을 가지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55년생 잠재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67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주의. 79년생 재산 나눠주고 가족끼리 동병상련(同病相憐). 91년생 모여서 소란스럽다.

 원숭이

44년생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 일이 늦어진다. 56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68년생 부모의 이혼을 막도록. 80년생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서 지출을 해라. 92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득이 나도록.

 닭

45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월말 결산에 이득이 발생. 57년생 보유한 산에 길이나니 모두다 조상님 은덕이다. 69년생 공부가 싫다면 기술을 연마해야. 81년생 의지할 데 없는 신세. 93년생 고생은 모르지만 남과 같이 협조하니 복이 온다.

 돼지

46년생 매화를 아내로 삼고 풍요롭다. 58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라. 70년생 일이 순조롭다. 82년생 바쁜 가운데 한가한 틈을 내 농업인의 공부를. 94년생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죽은 말의 뼈다귀를 산다는 표현이 있다.

 돼지

47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신중. 59년생 오후에 거래 계약. 71년생 일에 파묻혀 정신이 없다. 83년생 옛날에 큰 영화를 누렸으나 부도난 상태에 무슨 소용. 95년생 남이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을 버려야.

김상회의四季

노년의 품격과 관상



사람의 얼굴은 나이와 함께 변한다. 젊은 시절에는 생기가 담겨 있고, 중년에는 표정이 얼굴을 만들며, 노년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그대로 드러난다. 얼굴의 변화는 한 사람의 기운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래서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노년에 얼굴이 편안한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한다. 젊은 얼굴이 타고난 운이라면 노년의 얼굴은 만들어진 운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의 얼굴은 자신이 만든 얼굴이라는 뜻이다. 노년에 고요하고 부드럽게 보이는 얼굴은 그동안의 경험과 감정이 오랜 세월 쌓이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관상이란 타고난 운명보다 살아오며 만들어진 습관과 마음의 흔적이기도 하다. 노년의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단연 눈이다. 눈에 기가 없으면 생명을 잃은 관상으로 평가한다. 눈빛, 즉 신광이 흐려지지 않고 은은하게 살아있으면 노년에 더 품격있게 보인다. 맑고 따뜻한 눈빛은 평생을 올곧게 살았으며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노년에 눈 밑 와잠 부위가 너무 검거나 푹 꺼지지 않고 어느 정도 탄력을 유지하면 말년의 건강과 행복한 자손운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글고 두터운 턱은 말년의 복이다. 턱은 말년운과 노후의 편안함을 총체적으로 상징한다. 동글고 두툼하며 양쪽으로 살이 붙은 턱은 노년에 안정감 있는 생활을 암시한다. 넉넉하고 후덕해 보이는 턱은 평생 모든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며 자손들과의 관계도 화목함을 암시하는 좋은 말년 관상이다. 노년의 관상에서 중요한 건 다른 무엇보다 마음 씀씀이다. 사람들은 좋은 관상을 가지려면 얼굴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굴보다 마음이 먼저, 욕심을 줄이면 턱과 입이 안정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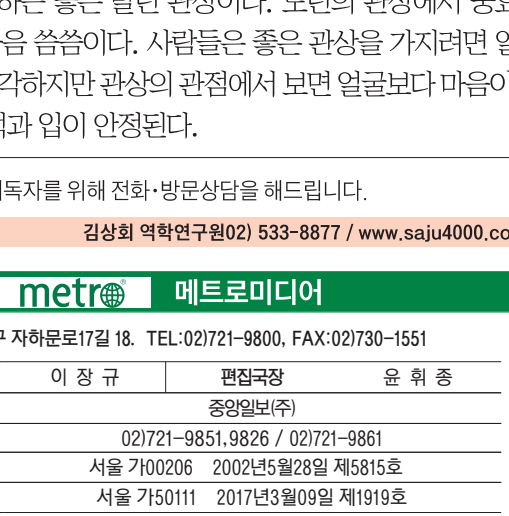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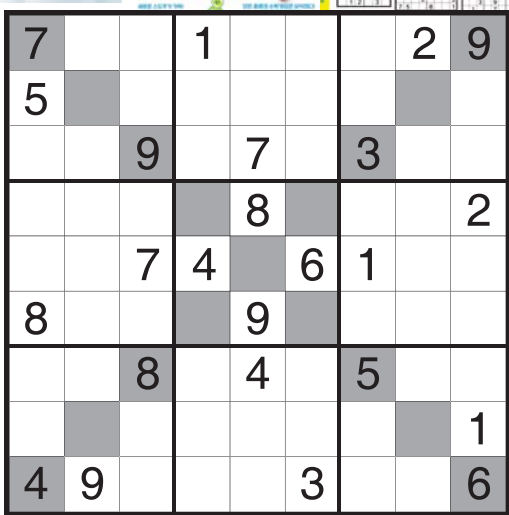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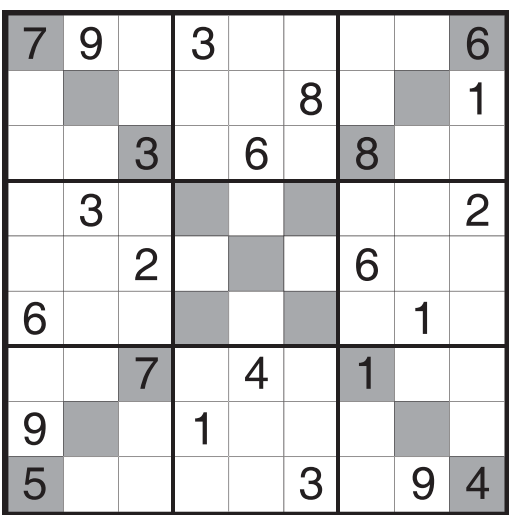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1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1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국내 유일 ‘외국인 특성화’… 마이크로디그리로 역량 강화

〈소단위 전공제도〉

2026 사이버대 가이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직무대행 김병철)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 교육 환경에 집약해 2004년 개교한 이후, 우수한 교수진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최첨단 온라인 학습 환경,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국내 사이버대학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원격대학이다.

◆ 사이버대학중 외국어 학과 수 ‘톱’

사이버한국외대는 국내 사이버대학 가운데 외국어·언어 관련 학과(전공)를 가장 많이 개설한 대학으로, 원어민 교원 확보 규모 역시 가장 크다.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사이버한국외대의 모든 외국어 전공 학부는 사이버대학 외국어 전공별 재학생 수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기술 혁신과 사회·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무 역량을 단기간에 강화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기존 학위 과정보다 적은 이수학점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제도다.

특히 학과 간 융합을 기반으로 ▲AIa



사이버한국외대 전경.



사이버한국외대 강의 모습.

외국어 학과·원어민 교원 가장 많아 해외 대학·기관과 국제교류협정 교환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내년 1월 15일까지 총 4479명 선발

nd Language ▲중화권 크리에이터 ▲일본어 플러스 K부터 ▲스페인어 문화 예술 디렉터 ▲베트남어 의료통역 전문가 ▲유튜브 마스터 ▲미디어 콘텐츠 스토리텔링 등 다전공 연계 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또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스페인,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태국 등 해외 대학 및 기관과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

으로 교환학생 제도, 단기 어학연수, 해외 한국어 교육실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하며 새로운 교육 모델을 구축해 왔다. 특히 2018년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정 체결 이후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확대하며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의 상황과 학습여건,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교내 장학제도인 ‘Need Based 장학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재학생 3명 중 2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 신·편입생 4479명 선발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는 오는 2026년 1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학부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등 총 10개 학부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총 4479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모집 인원은 1946명, 정원 외 모집 인원은 2533명이다.

정원 내 일반전형은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국내

주요 기업 등 위탁교육 협약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전형, 부사관·장교 등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 위탁전형,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편입 전형도 운영한다.

입학 지원은 수능 및 고교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신입학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편입학은 2학년과 3학년 편입으로 구분되며,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입학 지원은 대학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cufs.ac.kr)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모집 기간 내 입학원서를 작성·제출한 전형 평가는 자기소개서 70점, 학업소양검사 3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ipsi@cufs.ac.kr)이나 전화(02-2173-2580), 카카오톡(cufs)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병철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직무대행은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의 삶과 조건과 학습 여건을 존중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유연한 학사제도와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할 것” 취약계층 보호… 파주시, 겨울철 지원 확대

서울시의회 본회의 폐지안 가결 서울시교육감, 강한 유감 표명 “정치적 논리로 학교에 큰 상처 줘”

서울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폐지의결된 뒤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동일한 폐지 의결을 반복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의결은 정치적 논리가 앞선 결정일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 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국회가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14년을 앞두고 있다. 정 교육감은 그동안 조례가 학교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자리 잡



정근식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은 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해 왔고, 교육공동체로서의 권리가 조화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그는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기반을 허문 조치”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반영한 극단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조례 탓으로만 돌리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 원칙 위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더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두 바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정치가 학생·교사·학부모를 갈라 세우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가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돕는 숙고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폐지를 용인한다면 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불가침성·평등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3개월간 겨울철 종합복지대책 추진

파주시가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3개월간,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공백 해소를 위해 ‘2025년 겨울철 종합복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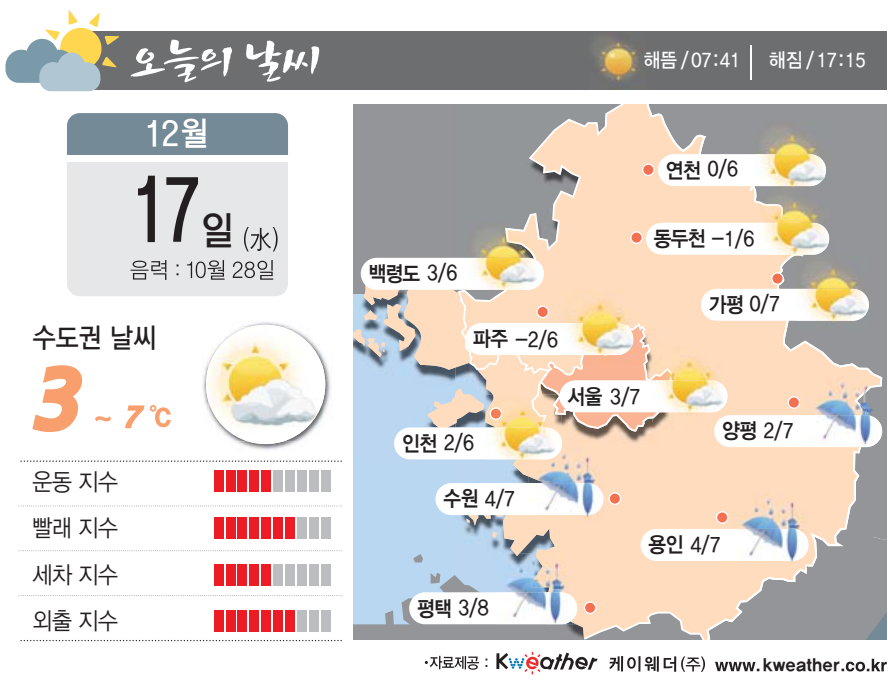
이번 대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목표로 ▲겨울철 종합 복지대책 지원체계 운영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 ▲1인 가구·노숙인·취약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 관리 강화 ▲나눔문화 확산과 민관

협력 확대 등 5개 분야, 1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복지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복지 관련 6개 부서가 참여하는 ‘겨울철 종합 복지대책 지원단’을 구성해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연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고위험 1인 가구를 비롯해 어르신·장애인·취약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中, 안보리서 다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 요구…“내정 간섭”
▲미국인 절반 “지출 줄였다”…트럼프, ‘생활비 위기’ 속 경제 시험대
/사진 뉴시스

▲트럼프 2기 출범 후 관세 수입 2000억 달러 넘어
▲머스크 재산 첫 6000억 달러 돌파…1조 달러 ‘조만 장자’ 되나

▲우크라이나 국민 4명 중 3명 “우크라이나군 돈바스 철수 종전안 반대”
▲트럼프, 펜타닐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법적 실효성 의문



절주문화에
주류업계
무알코올 공략
L1



Life

흑백요리사2 귀환
편의점·이커머스
IP경쟁 치열
L2



“부정적 이미지 깨고, 피부도 마음도 편안한 공간 만들고파”

속깊은 人터뷰

박 신 영 더결의원 원장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 지출이 올해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보톡스, 필러 등을 중심으로 한 노화 치료는 전체 절반(49%)을 차지한다. 피부과가 연간 1조원 규모의 외화 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이 수효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 피부과를 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하다.

피부과가 경쟁적으로 늘어나면서 '진료'보다는 고가의 '시술'이 우선인 병원이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치료를 받으려 방문했던 피부과에서 영업을 당한 경험이 쌓이다보면 피부과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해외에선 한국 피부과가 세계 최고라고 여기는 반면, 정작 국내에선 잘 모르면 텃터기 쓰는 곳, 비싸고 아픈 곳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7월 서울 반포동에 개원한 '더결의원'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깨는 곳이다. 박신영 더결의원 대표원장은 시작부터 '메디컬스파(Medical Spa)' 개념을 내세웠다. 아프고 비싼 시술을 원하는 병원보다, 개인에 맞는 편안한 관리를 통해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30대 초반 젊은 여의사의 첫 개원이고, 그래서 더 당찬 도전이다.

박신영 원장은 “피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고, 피부 관리, 시술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싶다”며 “지속 가능한 치료와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객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병원 같은 느낌이 없다.

“개원을 준비하면서 피부과 인테리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업체들을 일부러 피했다. 호텔 로비 같은 느낌으로 꾸며진 요즘 피부과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피하고 싶어서였다. 고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 ‘더결의원’은 무슨 뜻인가.

“피부과 트렌드에 장비와 미감 등은 유행을 타지만 모든 관리는 결국 고유의 아름다움, 피부 ‘결’에 대한 니즈로 돌아올거라고 생각했다. K뷰티가 글로벌화 되는 시점이지만, 외국인이 발음하기 좋은 이름보다 오히려 한국 고유어를 쓰고 싶었다. 더(the)와 결을 결합한 순수 한국어로 만들게 됐다.”

- 기존 피부과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나.

“요즘 강남의 유명 피부과는 시술만 받으러 가는 곳이라는 생각에 장벽이 좀 높다. 시술의 종류도 너무 많아 뭘 해야할지 모르고 갔다가 바가지를 쓸까 하는 걱정도 크다. 피부과 시술은 대체로 비싸고, 통증이 심하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피부과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이런저런 시술을 권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



박신영 더결 클리닉 원장이 서울 서초구 더결 클리닉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K-뷰티 돌풍에 피부과 의료관광 늘어
비싸고 아픈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 강해
시술 우선인 병원보다 힐링 제공하고파

1인체제 병원... 직접 상담부터 시술까지
시술시간 짧고 통증 적은 관리부터 권해

1대1 관리에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높아
연말·연초엔 ‘바르는 스킨 부스터’ 추천
편하게 찾아와 좋은 경험 받는 곳 됐으면

로 알고 있다. 여러가지 시술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피부는 물론, 몸에도 큰 스트레스가 된다. 무엇보다 어떤 시술이 내 피부에 잘 맞는건지 알 수가 없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어떤 시술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파악이 어렵다.”

- 더결의원이 차별화 되는 부분은.

“가장 큰 차이점은 원장 혼자 시술하는 1인 체제라는 점이다. 고객 한명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는 단점도 있지만, 대표원장이 모든 선(先)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리, 시술 계획을 직접 짚는 점에 만족도가 높다. 실제 이루어지는 관리, 시술도 상담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원장은 잠깐 진료만 하고, 나머지는 상담 실장이 담당하는 요즘 피부과들과 다른 점이다.

또한 더결의원은 고객에 맞는 편안함을 추구한다. 고객들이 동네 병원처럼 편하게 찾아와 원장과 수다도 떨며 상담을 하는 곳이다. 신사동이나 압구정동과 같이 피부과 경쟁이 심한 곳을 떠나 반포에 문을 연 것도 이 때문이다. 굳이 신사, 압구정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같은 퀄리티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너무 과한 진료나 시술을 한꺼번에 권하지도, 진행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편하게 상담을 받고, 우선 통증이 없고 바로 일상 생활이 가능한 관리부터 하기를 권한다. 아프지 않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다. 비싸고 과한 시술을 한 번 하기보다 평소에도 자주 관리를 받으며 힐링도 하고 조금씩 예뻐지는 것을 추구한다.”

변화의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피부관리를 받던 고객들이 점차 보톡스와 같은 가벼운 시술도 시도하면서 자신의 피부에 맞는 관리법을 찾아가고 있다. 만족도가 높아 지인과 가족들을 데려오는 고객도 늘었다.

- 어떤 시술을 권하고 있나.

“관리만 받던 고객들이 욕심이 생기면 우선 보톡스와 같이 시술 시간이 짧고 통증, 부작용이 적은 것들부터 권

한다.월 별로 이벤트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 그중에 맞는 것들을 추천하기도 한다. 대체로 통증이 적고 가격 부담이 적은 시술이다. 남성분들의 경우 일단 수염 제모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제모를 하고 나면 깔끔해지고 피부결도 많이 개선된다.”

- 관리는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은가.

“일반적으로 30대부터는 집중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보톡스는 주름을 예방하는 차원이지, 이미 주름이 생기고 나면 효과가 떨어진다. 피부 관리의 목적은 노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데 있다. 과한 시술을 한꺼번에 하기보다 자주 피부과를 찾아 관리를 꾸준히 받는 것이 효과가 높다.”

- 외국인 고객들도 찾아오나.

“요즘 K뷰티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업화된 병원을 피하고,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을 찾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검색을 해서 우리 병원을 찾아온다. 원장인 내가 직접 영어로 상담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관리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 K뷰티가 실제로 만족스럽다고 느끼면 한국에 대한 인상도 좋아지고, 또 찾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 원장은 K뷰티 시장이 커지면서, 피부과가 만드는 산업 창출 효과는 점차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피부 시술이나 관리에 집중하는 피부과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거두고, 유망한 산업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K뷰티의 성장을 느끼나.

“K뷰티 분야에 한국 의사들이 내는 경제적 인 효과가 BTS 못지 않다고 생각한다. 피부과를 포함한 미용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여전히 있다. 관리, 시술만 하고 돈 밖에 모르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실제로 K뷰티 관광을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 연말, 연초 겨울에 추천할 만한 시술은.

“연말, 연초에는 모임이 많기 때문에 우선 회복 기간이 필요 없는 ‘위코 우노(WiQO Uno)’를 추천한다. 주사 시술 없이, 특화된 기기를 통해 피부로 침투 시키는 ‘바르는 스킨 부스터’다. 통증이 전혀없고 일상 생활도 바로 가능한데 한 번만 해도 얼굴에 광이 나고 각질 관리도 잘 된다. 3회 정도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다. 리프팅을 원한다면 모노실이라고 해서 실 리프팅을 무서워 하는 사람들이 시도해볼 만한 시술이 있다. 점이나 잡티 제거도 겨울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연초 바쁜 약속들이 끝나고 나면 병원을 찾기 좋은 시점이다.”

- 앞으로 어떤 병원을 만들고 싶나.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서 피부 관리, 시술에 입문할 수 있는 동네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 매출을 급격히 높여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와 관리를 받고, 좋은 피부를 누리면서 마음도 몸도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더결의원 대기실 모습.

메트로 한줄뉴스



▲홍명보호, 결전지 북중미에서 ‘월드컵 최종 리허설’
▲김하성, FA 재도전 택했다...애틀랜타와 1년 294억원 재계약
/사진 뉴시스

▲키움, 외인 와일스·브룩스·아시아쿼터 가나쿠보 영입...알칸타라 재계약
▲임희정, 7년 연속 KLPGA 홍보 모델...팬 투표 1위 차지

▲‘셔틀록 여제’ 안세영, 3년 연속 ‘BWF 올해의 여자 선수상’
▲‘미국행’ 확정까지 일주일 남긴 송성문...‘키움 선배’ 발차취 잇는다